

밀어내기: 흑인 여학생들의 범죄집단화

인도자 지침서

바넷사 엠 윌슨 (Vanessa M. Wilson)

케냐 커밍스(Kenya Cummings), 자료 자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밀어내기: 흑인 여학생들의 범죄집단화 인도자 지침서
바넷싸 엠 윌슨 (Vanessa M. Wilson) 지음

© 2020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판권이 있음
475 Riverside Drive, 15th Floor
New York, NY 10115
www.unitedmethodistwomen.org

이 인도자 지침서와 거기서 발췌한 내용은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음. 다음 문구가 발췌된 자료에 들어가야 함: “밀어내기: 흑인 여학생들의 범죄 집단화 인도자 지침서 © 2020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에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이 책 안의 저작권 자료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해야 함.

괄호 안의 모든 쪽수는 (000쪽) 이 교재의 본 교재인 모니크 더블유 모리스(Monique W. Morris)가 지은 밀어내기: 흑인 여학생들의 범죄 집단화 (뉴욕: 더 뉴 프레스, 2016)의 쪽수를 말함.

참고: <밀어내기: 흑인 여학생들의 집단범죄화> 책자는 현재 영어판 이외에 번역판은 없음.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소그룹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인도자들은 영어판의 내용을 대충 설명해 주거나 요약해 주는 방법을 쓸 수 있고, 참가자들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함.

모든 성경 인용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한 표준새번역(NRSV) 성경을 사용함© 1989 대한 성서 공회 기독교 서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영어 성경은 일반인을 위한 성경(CEB)은 Common English Bible®, CEB® Copyright © 2010, 2011 Common English Bible™ 에 판권이 있는 것을 허락을 받아 사용함. “CEB” 그리고 “Common English Bible”은 미국 특허국에 등록된 상표이며 그 상호를 사용할 경우 허락을 받아야 함.

성경중에 NIV라고 표시된 것은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서 인용하였으며 판권은 © 1973, 1978, 1984, 2011 Biblica, Inc.® 에게 있고 허락을 받아 사용함.

성경 중에 MSG라고 표시된 것은 THE MESSAGE에서 인용하였고 © 1993, 2002, 2018 판권은 Eugene H. Peterson에게 있으며 허락을 받아 사용함. Tyndale House Publishers, Inc가 허가를 대행하고 있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들의 공동체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경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목차

서문 | 5

들어가는 말 | 7

첫째 모임: 생존을 위한 몸부림 | 18

둘째 모임: “태도” 만으로도 죄가 되는 흑인 여학생을 위한 애가 | 27

셋째 모임: 교실안의 이세벨 | 36

넷째 모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로 세워가기 | 44

추가 모임: 밀어내기 개관: 광야로 내몰림 | 51

부록 A | 59

부록 B | 61

부록 C | 62

부록 D | 63

부록 E | 64

참고 도서 및 자료 목록 | 70

저자와 자문위원 소개 | 72

서문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예레미야 31:15)

이 인도자 지침서는 학습 인도자들이 모니크 더블유 모리스(Monique W. Morris)가 지은 *떨어내기: 흑인 여학생들의 범죄 집단화*라는 교재와 함께 연합 감리교회 연선교회의 <미션 유>에서 사용할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나 교단 지도자들이 흑인 소녀들의 삶에 닥친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여성들, 교회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선교적인 참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할 때 사용할 것이다. 개인들도 이 인도자 지침서를 사용해서 깊은 개인적인 연구를 하는 길잡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대량 수감이 미국 내에서 흑인 여성들과 소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떨어내기*는 2016에 출판되었는데, 교육 제도와 교정 행정 제도가 점점 더 흑인 여학생들의 행동을 범죄화 하는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모리스(Morris)는 여학생들과 십대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동시에 근거 통계 자료들을 제시해서 흑인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학대하고 지속적으로 소외하는 이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그녀는 어리게는 여섯살 난 아이들의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그들의 이야기들이 그들이 다양한 차원의 소외-인종, 나이, 성별, 성적 정체성-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다르기는 해도, 이 소녀들의 목소리들은 한결같이 정의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의 희망은 이러한 소녀들의 목소리들이 모든 참가자들과 독자들에 귀에 울려 퍼지고 가슴을 감동시켜서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라헬은 유대인 전통에서나 기독교 전통에서나 믿음의 어머니인데 한 아들을 낳다가 출산 중에 죽었다.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창세기 35:18). 그 당시의 관습과는 다르게, 그녀의 남편 야곱은 그녀의 시신을 매장할 위해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녀를 예브라 혹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근처에 묻었다. 야곱은 그녀의 묘지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 그 비석이 오늘까지 남아 있다 (창세기 35:19-20).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라헬을 거기에 묻었다고 말한다. 그래야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이 미래에 포로로 그 길을 지나서 끌려갈 때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 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와 회복에 관해 적었는데 시적으로 이렇게 선포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

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예레미야 31:15). 그녀의 무덤에서 라헬은 자기 집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포로로 잡혀가는 자녀들을 위해 울고 통곡한다. 이 자녀들의 운명은 절망적이고 불안하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한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네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네 아들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네 아들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예레미야 31:16-17). 그럼에도 21세기인 지금 통곡과 울부짖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다. 현재도 귀를 파고드는 애가는 그들의 인종과 성별과 성적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아이들의 목소리들과 함께 섞여 들린다. 라헬은 아이들을 소외시키고 야단치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정신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공동체에 충격을 주는 교육 및 교정 당국이 사용하는 계략에 의해서 자기들의 가정에서 떨어지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찢어지고 있는 흑인 소녀들과 다른 유색인종의 아이들을 위해 울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러나 기독교인들과 양심적인 정직함과 정의와 자비를 위한 심장이 있는 다른 이들도 역시 계속해서 외치며 이 아이들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헬처럼 그들도 울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imago Dei)*로 대접받는 안전한 곳으로 회복될 때까지 위로를 받으면 안된다. 이 곳에서 그들은 현재와 다세대에 걸친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될 수 있고 자라고 배우고 성숙해져서 건강한 어른이 되는 일이 허락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울고 통곡하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 선교적인 참여와 기도와 행동과 옹호와 활발한 공동체 대책들이 필요한 그 다음 단계이다. 우리가 바라기는 독자들과 워크숍에 참가한 이들이 교육과 교정 당국의 개혁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기반이 되는 도구들을 얻었으면 하는 것이다.

들어가는 말

이 인도자 지침서는 *밀어내기*안에서 살펴본 문제들과 주제들이 있게 된 배경과 법률들의 간단한 역사와 신학적인 토론, 그리고 교재 인도자들을 위한 제안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는 두시간짜리 모임을 위한 네 번의 모임을 위한 강의안이 있는데 그것은 *밀어내기*의 서론과 구체적인 각 장들에 맞추어져 짜여 있다. 매 모임은 성경 공부와 배우고 탐구하는 부분과 예배와 음악, 활동과 혹은 모임의 주제를 탐구하는 다른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 모임도 포함되어 있다. 45분짜리 워크숍인데 그 자체로도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모임에서는 언어적/청각적, 시각적/공간적, 몸/활동적, 관계적, 그리고 영적인 지능 등을 토대로 한 다양한 학습 스타일(다중 지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인도자 지침서는 아이들이 경험했던 충격, 제도적인 인종 차별에서 겪은 세대간 충격, 흑인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 가해진 불필요한 과도한 처벌 규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또한 사회가 어떻게 흑인 여자 아이들이 자연적인 성장 단계에서 하는 행동들을 범죄적인 것으로 보도록 고정 관념과 비유들을 만들어 왔는지도 점검할 것이다.

역사적 배경

여러 점의 기반 위에 세워지고 대서양을 오가며 시작된 노예 무역과 지속적인 인간 노예 제도의 잔혹성은, 죄수들을 개인 농장에 일꾼으로 부려먹는 일과, 감옥을 영리 사업화해서 대규모 유색 인종의 수감을 통해 착취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 감옥으로 가는 직행 통로(the school-to-prison pipeline)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흑인 여학생들의 행동을 범죄화하고 특히 교육 제도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의 흑인들에 대한 오랜된 학대와 억압과 소외 역사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인 것처럼 보인다. 비록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아프리카 혈통의 미국인을 묘사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 인도자 지침서는 “흑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모리스(Morris)의 교재와 일관성을 가지는 동시에 교육과 법적 정책과 과정에서 제도화된 인종 차별이 종종 국적이나 정체성이 아닌 한 사람의 피부색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와 관련이 있는 한, 국적이나 출신지는 갈색 및 흑색의 피부를 가진 이들을 향해 행해지는 정책과 관습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 종종 한 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학교 직원이나 경찰이나 법원 직원들이 취할 행동은 정해진다. 5장에 걸쳐서 모리스(Morris)는 다양한 배경과 다른 사회 경제적 계층과 나이에 속하지만 공통된 이야기를 나누는 흑인 소녀들의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학교에서 밀려나서 정해진 길로 내몰리고 있었다. 이러한 소녀들은 종종 단지 자기들의 정체성, 즉 젊고,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공격 목표가 되었다.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역사적으로 단지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사실상의 그리고 법적인 규정과 기준의 희생자들이 되어 왔다. 공공 시설에서의 흑백 분리에 관한 법들, 교육과 주거 시설에 대한 접근성, 투표권 박탈과 수많은 다른 권리의 박탈 등은 단지 피부 색에 의한 것이었다.

1865년 북군이 남북 전쟁에서 이긴 것은 노예였던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는 많은 변화를 촉진하였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 제도의 폐지와 미국 수정 헌법 13조의 제정이다. “남북 전쟁은 남부가 미국의 일부로서 계속 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1865년에 남부를 어떻게 노예 제도에 대한 경제적 및 지적인 중독으로부터 해독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없었다.”¹ 제 13조 수정 헌법은 한 부분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노예 제도나 비자발적인 노역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의 처벌의 일부가 아닌 한, 미국내 혹은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어느 곳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² 이 중요한 수정 조항은 그 전에 노예였던 이들의 자유를 위한 길을 닦아 주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처벌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자유민이 된 노예들을 다시 제도적으로 노예로 돌아가게 하는 발전을 허

락하는 단서를 담고 있었다. 단서 조항인 “당사자가 적법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의 처벌의 일부가 아닌 한”이라는 규정이 부도덕한 입법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흑인들이 아주 사소한 범죄로 잡혀서 유죄 선고를 받도록 하는 문을 열어 주었다. 흑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일이 반복된 첫 번째 사례는 죄수들을 개인 농장에서 부려먹게 한 것이다. 이 제도를 뒷받침한 것이 흑인 단속법(Black Codes)의 통과이다. 이전에 노예였던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수감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법이다. 이 법은 수감자들이 개인 기업가들, 대농장주들, 광산업자들, 그리고 다른 산업주들에게 “임대”되는 수단이였다. 이런 임대 대상이 되면 흑인들은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처벌의 일부인 노동은 새로운 형태의 노예 제도였다. 비록 새로운 형태이기는 해도, 처벌 노동은 여전히 현대판 감옥에서 사용되고 있다.

죄수 임대는 사실상 그 이전의 노예 제도에 의해서 다져진 인종적인 복종을 교묘하게 지속하기 위해 만든 사회제도의 일부이지 아무리 잘 봐주어도 감옥 역사의 일부로는 이해할 수 없다. 즉, 그 임대 제도는 남부 인종 차별을 효과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법과 관습의 큰 조직의 한 부분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죄수 임대의 잔혹성은 분명히 더 종합적인 위협과 폭력에 속하는 것이며, 그 제도의 본질적인 일부이지 어쩌다 벌어진 일탈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³

비록 흑인 단속법이 결국에는 폐지 되었지만, 그것들은 짐 크로(Jim Crow) 법으로 대체되었는데, 그 법 역시 흑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인 발전과 교육의 기회와 정치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였다. 이러한 법들은 모든 면에서 흑백 분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많은 짐 크로(Jim Crow) 법들이 1964년의 인권법(Civil Rights Act)과 1965년의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이 통과될 때까지 존속해 있었다. 2010년에, 미셸 알렉산더(Michelle Alexander)의 저서, 새로운 짐 크로(Jim Crow)는 흑인 남녀를 불공평하게 처벌하되 이제는 단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흑인 공동체의 가족의 안정성과 공동체의 경제적인 성장에 해를 끼치는는 미국 형사제도의 또 다른 반복을 폭로하였다. 더군다나 감옥의 사유화는 대량 수감자를 늘리고 있다. 불공평한 체포와 유죄 평결과 형량 관습은 감옥에 흑인들이 가득차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채워진 무료 노동력은 주방장에서 소방관까지 다양하며 개인 및 공적인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 수감자 임대 제도처럼 “새로운 짐 크로(Jim Crow)” 제도는 인종차별적인 형사 법 제도를 영구화하고 있다. 동시에 형사법 제도에 들어오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동 보호 기금(Children’s Defense Fund)의 마리온 라이트 에델만(Marion Wright Edelman)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파이프라인”(CPP, the cradle-to-prison pipeline)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그녀는 씨피피(CPP)는 “가난한 아이들-특히 가난한 흑인과 라티노 아이들-이 자라서 생산적인 어른이 될 확률을 줄이도록 협력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들 및 정치적인 선택의 복합적인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의료 시설에의 제한된 접근 (정신 건강 시설을 포함함), 실적이 좋지 않은 학교들, 아동 복지 및 청소년 법제도의 부실, 매춘 알선을 장려하고 폭력을 영웅시하는 독극성 청소년 문화 등이 포함된다.”⁴ 씨피피(CPP)는 에델만(Edelman)에 의해서 건강의 위기로 규정되어 왔다.⁵

흑인들에 대한 억압은 모든 분야에서 자행되어 왔다. 흑인들의 노동력을 형사법 제도를 통해서 확보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흑인 남녀의 수감을 심각하게 불균형적으로 촉진시킨 것은 단지 억압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교육은 접근성과 형평성이 부정된 또 다른 분야이다. 1863년 1월 1일의 노예해방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3년이 지난 후에도 대법원은 아직도 “분리되었으나 평등한” 것이 이 나라의 법이라고 판결하였다.⁶ 이러한 법적인 분리는 흑인 미국인들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교육 제도에 있어서 잔혹하였다. 기념비적인 사건인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부 사건”(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에서 비로소 법원은 학교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이 “신중한 속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것은 모순이었다.⁷

비록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울리 머레이 목사(Rev. Dr. Pauli Murray)는 브라운 사건에서 한 몫을 감당하였다. 1948년 전국 세미나의 추천에 근거해서, 1952년에 인종 정의 헌장의 시리즈 중 첫 번째 헌장이 감리교 여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첫 헌장의 언어는 국가적으로나 감리교회 안에서나 현실이었던 흑백 분리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인권변호사였던 파울리 머레이 목사(The Rev. Dr. Pauli Murray)는 최초의 여성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 성공회 사제였고 여성을 위한 전국 조직의 공동 창시자이기도 했는데, 여성국의 위촉을 받아 흑백 분리 교육을 지배하는 “인종과 피부색에 관한 주법들”이라는 제목의 주 법들에 대한 분석 논문을 쓰게 되었다. 이 문서가 “브라운 대 교육부”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 변론을 맡은 변호인들의 변론에 영향을 미쳤고 거기서 대법원이 “흑백 분리 교육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⁸ 고 판결하게 된 것이다.

브라운 사건 이후 65년이 지난 후에도 흑백 분리 학교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그것은 경제적 인 지위에 따라 규정된 도시 경계와 학군에 의해서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인다. “학교의 분리는 주거 지역 분리의 한 증상이다.”⁹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학생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징계에 의존하며, 학교 제도 안에서 경찰력에 더 많이 의존한다. 제도적인 인종차별의 복합성은 흑인 미국인들의 삶의 모든 면에 관여한다. 여기에는 언론에 비친 이미지도 포함되는데, 그것이 종종 우리가 제한된 접촉을 하는 이들에 대한 견해를 형성한다. 이러한 합법적인 인종차별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들은 현재는 가난과 교육과 성차별과 계급차별과 어린이 보호권과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증 등이 얽혀 있는 더 복잡해진 확장된 제도를 보고 있다.

모리스(Morris)는 이러한 새 현상을 밀어내기라는 저서에서 다루고 있다. 그 책은 우리에게 흑인 여학생들을 잡아 먹고자 하는 제도를 인식하고 그 제도를 끝장내는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향한 분명한 경고음을 들려주고 있다. 우리가 밀어내기를 읽을 때,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묵상해 보자. 그것은 없는 자와 잃은 자들을 향해 있고 정의와 자비와 은총을 인격화한 것이었다. 마틴 루터 킹 목사(Rev. Martin Luther King Jr.)가 썼듯이, “어느 곳의 부정의는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호성의 연결에 묶여 있고 하나의 운명의 옷으로 엮여 있다. 한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¹⁰

신학적 틀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18 - 19)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은 자기 동족들의 습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셨다. 한 안식일에는 두루마리를 집으시고는 이사야 선지자의 혁명적인 말들을 읽으셨다 (이사야 58:6 과 61:1 - 2 참조; 동시에 레위기 13 - 14 참조). 그렇게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로 가셨다. 주님은 그전에도 본인이 어린이였을 때 그들과 함께 했었다. 우리는 주님이 어렸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을 것

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은 당시의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가졌던 편견을 받을 어린 아이
가 더 이상 아니다. 주님은 그의 사역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시대의 변화에 대해 경고하신다. 예수님은 패
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골랐다 (이사야 61:1-2 과 58:6). 예수님은 개인 및
공동체의 변혁을 위한 혁명적인 사역을 선포하셨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
한다. 거기에는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궁핍한 이들을 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 함축된 내용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행동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할 때, 그 분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과 교제하셨다. 그러나 마
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도 음식을 먹이시고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도
록 도우시고 그들의 세금도 내주시는 등 그들과 교류하셨다. 주님은 부의 재 분배를 장려하시면서 한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였고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는 경제 정의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주님은 계속해서 죄수들이 로마의 지배와 부당한 억압하에 살던 시대
에 풀어줄 것을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들은 중요하고 강력하며 심지어는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예수님
은 희년법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레위기 25:8-13에 나오는 것이다. 희년이 되면 종들은 고향으로 돌아
가게 된다. 예수님은 단지 상징적인 자유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적인 자유만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들이 실제로 석방되는 시기를 언급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선교와 사역 둘 다를 이해하신다. 선교는 분명 비전과 목표를 통해 규정된다. 사역은 그 선교를 이
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예수님은 결코 그의 사역에서 벗어나지 않으셨고 자신의 선교를 삼년 안에 이루실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궁금해 할 수 있다. 주님은 자신이 견뎌야 될 고탄의 깊이를 알고 있었을까?
주님은 자기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나라의 원수인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
들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또한 부당하게 기소된 죄인이었다. 주님은 자신의 언어 사용에 있어
서 의도적이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치유의 사역을 선포하셨다. 그것은 나중에 시각 장애자의 눈을 실제로 뜨
게 하는 기능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씀에서 처럼 영적인 시각을 언급하신 것이
기도 하다. 주님의 선교적 선언에서 예수님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이셨
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에서도 드러난다. 시각은, 신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성경 시대나 현대 사회에서나
성공적으로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이 해방시키는 것임을 선포하셨다. 복
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보면 실제로 주님은 위대한 해방자였다. 세리와 교제하시고 여성과 아
이들과 가난한 자들과 심지어는 죽은 자들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시간을 그런 주변부에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는데 쓰셨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의 주님의 사역은 그 당시의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호적인 입장을 천명하시는 선교적인 선
포를 계속하셨다. 이러한 단어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도 혁명적이었다. 성령께서 사회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개입하실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은 정의와 새로운 언약과 사람들이 더 이상 억
압당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자유와 사랑의 완벽한 하나님의 법에 접근 가능한 새로운 나라를 요청하는 선
지자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는 데 흔들림이 없으셨다.¹¹ 이사야의 사역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
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정의의 외침을 거부하는 것을 정죄하는 경고로 시작한다: “옳은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
여 주어라” (이사야 1:17). 이제, 예수님이 그 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정의

정의의 개념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걸쳐 면면히 흐르고 있다. 선지자들은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우라는 외침을 한다. 많은 이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Dr. Martin Luther King Jr)의 많은 저작들을 읽는데 거기에 선지자 아모스가 인용된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이 말씀들은 위대한 말씀이다. 그러나 실제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지자가 꾸짖은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의 힘겨운 노동에서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이들과(아모스 5:11), 그들을 경멸하고 뇌물을 받는 이들이다. 그들이 밀을 팔 때는 그들은 저울을 속이고 지불할 금액을 속인다(아모스 8:5). 그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이다. 이러한 무자비한 착취를 행하는 이들은 이름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집은 사마리아인데 그곳은 8세기 북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다(아모스 3:9, 4:1, 그리고 6:1). 아모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기와 헌금 보다는 정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너희가 별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1 - 24).¹²

마찬가지로, 미가와 이사야도 유대를 쳐서 외치면서 강제 노역과 가난한 자의 착취를 고발한다. 이사야는 가난한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소유를 늘리는 이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감옥 사업 제도를 이용해서 유색인들과 가난한 이들로부터 자신의 부를 증식하는 이익을 취하는 이들의 활동과 비슷하다. 이제, 그 제도는 흑인 소녀들의 삶을 희생하여 자기들의 탐욕스러운 장사의 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정의를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법은 공정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정의의 개념과 법의 적용은 히브리어 성경의 불가결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정의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나는 독자들이 법적인 눈을 가지고 민수기 27:1 - 8을 하나님이 여성을 위한 정의를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하는 한 예로 읽기를 바란다. 여기서 하나님은 슬로보하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허락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욥기를 욥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법적인 문서로 보자. 욥의 진술은 자신의 의도에 관해 중요한 것이다: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실 것이다” (욥 23:3 - 6). 이 소송에서 욥은 이기고 자기의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다. 그는 또한 자기 딸들을 위한 유산을 줄 방법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딸들이 본문에서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다. 모세는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선포한다. 그는 여성이 가난하고 힘없고 오직 남자에게만 의존하거나 자기들의 삶과 생존을 위한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정의가 어떻게 충족 되는지를 자세히 보라고 초청한다. 그것은 복수나 징벌을 위한 정의가 아니고 회복을 위한 정의를 탐구한다. 마찬가지로, 욥은 비록 잃어버린 자녀들은 회복할 수 없었지만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회복되었다. 마찬가지로 밀어내기에 묘사된 부당한 교육 및 형사정의 제도의 무게에 깨어지고 상처입은 소녀들에게 가해진 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지만,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신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이 소녀들의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이들 중의 어떤 이들은 지금은 숙녀가 되었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교육받고 사회 정의 옹호활동을 하면서 제도가 바뀔 때까지 사역하고 있다. 욥은 힘든 과정을 지내는 동안 버텼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단 욥이 회복되고 나자 그는 자기 딸들 여미마, 겻시아, 게렌합복을 포함한 모든 살아 있는 자녀들을 위한 분배를 하였다. 이 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소녀들과 이들 중 가장 작은 이들, 즉 종종 선지자들이 정의를 요구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몫을 만들라는 소명을 받았다.

차별적인 정의는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피의자를 바라본다. 회복적인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바라본다. 그것은 공동체적이며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 신학적인 눈으로 읊기를 보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고자 한다. 법적 눈으로 읊기를 보면 정의를 찾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양 당사자의 의무와 선례를 찾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차별적인 정의는 넓게 보면 사회의 질서를 어긴 이들에 대한 처벌과 그러한 범죄자에 의해 훼손된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는 이 두가지와 관련되어 구축된 것이다. 차별적 정의의 연구와 실천은 종종 일방적인 과정, 즉 판사가 범죄에 적합한 처벌을 정하는 경우에 따른 형량등의 처벌 정도를 정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¹³ 반면에,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둘 다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추구한다. 회복적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회복하는 일을 추구한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에 의해서 가해진 피해를 고치는 것을 강조한다. 그것은 미국과 대부분의 세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차별적인 처벌에 근거한 제도의 대안이다. 회복적인 정의는 대립되는 두 당사자가 있는 접근법이 아니라 범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들, 최소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해서, 모두를 다 불러 모아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는 자기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한다.”¹⁴ 그렇게 해서, 회복적인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와 공동체에 초점을 둔다. 종종 계약법에서 사용하는 복구는 손실에 대한 법적인 보상이다. 그것은 그것은 피해 보상과 손해 배상에 가까운 개념이다.

몸들: 흑인, 젊은, 여성, 그리고 가난한 이들

불행하게도, 젊은 흑인 여성의 몸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버린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모리스(Morris) 이것을 밀어내기에서 밝히고 있다. 그녀는 노예 제도와 짐크로(Jim Crow)와 다른 법인들이 흑인 미국인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이러한 잘못들을 바로 잡을 회복적인 정의의 부재로 생긴 영향들을 살펴보고 있다.

웨슬리의 신학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셨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마가복음 10:13 - 16).

개인적인 성결과 사회적 성결 둘 다를 끌어안으면서 감리교인들은 역사적으로 궁핍한 이들의 필요를 채울 시간적 공간적 자원을 마련하는 일에 개입해 왔다. 요한 웨슬리는 자기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자기 사역 안에 마련하였다.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 노동자들의 권리와 죄수들의 인권과 모든 이들을 위한 의료 및 복지 혜택과 인간의 해방을 대변했다. 그는 제도적인 노예 제도를 반대했다.

노예 제도의 악에 대한 논문에서 감리교회의 창시자는 분명히 자신의 신념을 서술하면서 “자유는 모든 인간이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필요한 인간의 권리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법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자연법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처음에 런던에서 1774에 출판되고 다시 미국 독자들을 위해 필라델피아에서 같은 해 재판된 책에서 밝히 웨슬리의 노예 제도에 대한 웨슬리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1784년 볼티모아 연회에서 승인되었고 다시 미국 감리교회 장정의 첫째 판에 다시 서술되었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1800년대 이후의 노예제도에 대한 정책은 이러한 초기 원칙에서부터 슬며시 후퇴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1804년 감리교 총회에서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장정을 출판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미국 남부에서 팔리는 장정에는 노예 제도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었다.¹⁵

감리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노예 제도에 반대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웨이커 교도들만이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서 감리교인들보다 더 열성적이었다고 말한다. 감리교회가 식민지에서 처음 형성될 때의 문서를 보면 노예제도에 대한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 노동이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감리교회의 핵심 신앙은 이 제도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감리교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다른 인간들 위에 두었다. 이 입장은 결국 교회를 나누게 되었고 남감리교회를 1846에 만들게 되었다.

비록 성경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노예 제도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납치해다가 비인도적인 상황에서 운송하고 가족들을 분리시키며 개인들을 때리고 신체를 훼손하고 고문하고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켜먹은 대서양을 오가는 노예 무역과는 천지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노예 제도의 관습은 인류 역사가 기록되 이래 항상 있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애굽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의 경험에 근본적인 것이며 결국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된 내용에도 근본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킨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예에 관한 법률도 포함한 법들을 주셨다.

“노예”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현대의 노예제도로 이해되는 것과는 다른 상황에서 사용된 말이다.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나오는 노예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허락된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차라리 “채무 노동자” (진짜로 채무를 진 경우에만 해당되어야 함) 혹은 “노동 봉사자,” 아니면 “하인” 혹은 “하녀”로 말해야 될 것이다. 레위기 25:6은 네 가지 노동 종사자들을 구분하고 있다: 남자 종 (노예), 여자 하녀, 품꾼, 그리고 나그네. 다른 구절을 보면, 품꾼과 나그네 사이를 구분하고 있다 (레위기 22:10; 25:40).¹⁶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구적인 노예가 될 수 없었다. 단지 외국인들(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들)만이 영구 노예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지 조항들이 있다. 노예들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었다. 노예 제도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채무 노예나 정치적 노예에 근거한다. 대서양을 넘나든 노예 무역은 사유 재산 제도이다. 이 말은 인간이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소유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다. “신대륙의 사람들로 태어난 아프리카 계 미국인들의 탄생은 대서양을 건너서 자기 고향에서 잡혀온 최소한 천만 아프리카 사람들의 강제 포획과 이동의 결과이다.”¹⁷ 그들은 잔인하게 취급당했고 그들의 지위는 영구적이어서 대대손손이 지속되었다. 공동체와 가족과 문화는 파괴되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거역이다: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를 잡거나 사서 노예로 삼는 일은 합법적이 아니었다. 그런 행동에는 사형으로 처벌했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출애굽기 21:16). ‘어떤 사람이 같은 겨레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신명기 24:7). 이러한 규정은 그 자체로 엄격하고 분명히...현대판 식민지 노예에 대한 저주이다. 실제로 모든 북미와 남미의 노예들은 납치에 의해서 된 노예들이다. 노예 상인들과 그들의

물주들은 일반적으로 은행가들이거나 귀족들로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공격해서 구약성경에 의하면 생명을 취해야 되는 이들이다. 이런 저주는 단지 잔인한 노예 사냥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던 영국과 미국의 시민들로서 노예 무역에 돈을 낸 이들에게도 적용된다.¹⁸

어떤 주들, 가령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은 “양식 주들”로 알려졌는데, 거기서는 흑인 여성의 아이들이 남부의 주들로 팔려갔다. 대서양안의 노예 무역은 전례없는 충격적인 일로 미국에서의 흑인들과 흠어져 사는 아프리카인들의 삶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서는 상흔의 시작이었고 나아가 소년원과 사법 교정 제도에 의해서 더욱 더 충격을 받게 될 여성들과 소녀들의 삶을 유령처럼 따라다녔다. 장정에서 단지 노예 제도에 반대해서 그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잡거나 없애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 감리교는 미국과 함께 성장했고 감리교는 인종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양쪽에서 입장을 취했다. 종종 감리교인들 중 선한 양심을 가진 이들은 한쪽으로 조용히 비켜서 있었다. 비록 흑인 설교자인 해리 후지어(Harry Hoosier)가 식민지에서의 최초의 감리교 감독이자 나중에 논의할 리처드 알렌(Richard Allen)을 안수한 백인 프랜시스 애즈베리(Francis Asbury)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는 했어도 흑인들이 감리 교회에서 쫓겨난 시기와 장소들이 있었다:

초기 개척 당시에 심각한 문제들이 없지 않았다. 특히 감리교인들에게 있어서 감리교회의 구조와 가치관과 미국 문화의 상식(특히 감독제도와 인종과 노예제도)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고 분열로 이르기도 하였다. 1792년에,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는 공화 감리교회(Republican Methodists)를 창시하고 감독들의 권한을 축소하였다. 리처드 알렌(Richard Allen, 1760 - 1831)은 해방된 노예였고 감리교 설교자였는데 인종 차별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서 1816년에 아프리카 감리교회(The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를 조직했다. 비슷한 이유로 아프리카 시온 감리교회(The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도 1821년에 시작되었다. 1830년에는, 약 5,000 명의 설교자들과 평신도들이 교단을 떠났는데 그것은 평신도에게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재 장로 목사(지방 감리사)를 뽑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생긴 새 단체는 감리교 개신교회(The Methodist Protestant Church)라고 불렸는데, 1939년에 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통합 때 합쳐져서 감리교회가 되었다. 1843년에는 노예제도 폐지론자인 설교자 오렌지 스캇(Orange Scott)과 루터 리(Luther Lee)가 웨슬리안 감리교회(Wesleyan Methodist Church)를 조직했는데 감리교회가 노예 소유주들에 대한 금지를 너무 약하게 한다고 한 것이 이유였다.¹⁹

1939년에는, 남감리교회, 감리교 개신교회, 감리교회가 통합해서 하나가 되었고, 흑인들은 다시 쫓겨나서 계속해서 분리되었는데 그 때 생긴 것이 중앙 지역총회(Central Jurisdiction)이다. 모든 흑인 교회들과 지방회들은 이 중앙 지역총회에 속하고 교회는 분리를 지속하였다. 모리스 데이비스(Morris Davis)는 이 중앙 지역총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북부 백인들, 특히 감리교회 같은 교회에 있는 이들은 짐 크로(Jim Crow) 법으로 알려진 법들이 흑인 미국인들의 삶을 휘어잡고 관통하는 상처를 낼 때에도 개입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인종 정의의 문제들에 대한 침묵이라는 실패를 넘어서 전국이 지켜본, 그리고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분리된 교회를 만들게 한 합동 위원회의 토론은 직접적으로 짐크로(Jim Crow)의 힘과 영향력에 일조하였던 것이다. 교회는 도덕의 심판자이며 전국적인 양심의 소리로 여겨졌고, 교회가 거의 한 목소리로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금주 운동에 앞장섰다. 그래서 전국이 그가 장 성공적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고 있었다. 합동 위원회는 분명히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종 통합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도덕적 권위를 주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미국 기독교 문화의 더 나은 발전은 인종간의 분리없이 가능하지 않다.²⁰

우리가 감리교 전통의 공과를 생각하면서 되돌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는다. 혁명적이며, 환대하며, 변혁적이며, 포용적이며, 해방적이며,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모임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의 구조

인도자 지침서의 매번 모임은 정해진 모임 구조에 따른다. 이것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참가자들이 모임의 흐름에 익숙해짐으로써 배움을 촉진하도록 의도적으로 일관된 구조를 따를 것을 요한다. 첫 네 모임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기획되었다. 그러나 각 모임은 따로 가져도 된다. 추가 모임 자료는 교회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기획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 독립되어 앞의 네 모임과 구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요 모임에서 다룰 내용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들: 각 모임은 셋 내지 다섯 학습 목표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참여 규칙들: 각 그룹들이 자기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데 따르는 규칙들을 정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룹의 단합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참가 규칙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밀보장,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려운 대화를 할 때 필요한 인내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그룹에서 언약을 만들 때 은혜의 여성 공동체: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 프로그램북, 2018-2019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다.²¹ 그와 동반으로 참가 규칙을 정하는데 사용될 추천되는 자료로는 샬리 디크 감독(Bishop Sally Dyck)이 쓴 거룩한 모임을 위한 여덟가지 원칙들이 있다.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mnumc-email.brtapp.com/files/eefiles/documents/holy_conferencing_study_guide_2012.pdf.²²

인도자는 이 공부에 참가하는 이들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들 중 어느 것들은 감정적인 혹은 다른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교재 인도자는 또한 참가자들에게 처음부터 이 과에 나오는 어떤 대화들은 깊은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이 필요없이 방을 잠시 나갔다가 와도 좋다고 허락해 준다. 사실, 이런 이야기나 비디오들 중 어떤 것은 인도자에게도 깊은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자는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각 모임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료들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인도자들은 각 모임을 열정적인 방식으로 인도할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인 열정이 모임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든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해야한다. 목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읽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소화하고 교재와 성경을 대하고 나서는 성령께서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순전한 정체성과 젊음을 빼앗아 가는 제도에 희생되고 있는 흑인 소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적인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모임 요약: 이 부분은 모임 인도자와 참가자 모두를 위한 부분이다. 그것은 이 모임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활동의 요약을 제시한다. 모임 인도자들은 이것을 참가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들은 모임 요약들을 큰 소리로 읽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짧은 경우), 중요 요점들의 개관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것이 긴 경우), 아니면 각 모임 요약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서로 주요 요점을 토론하게 할 수도 있다.

중요 용어들: 참가자들이 익숙하지 않게 여겨지는 용어들은 각 모임에서 정의되고 토론된다. 이러한 용어들을 담은 유인물이 정의와 함께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인도자는 해당 용어 유인물을 각 모임 전에 복사해서 참가자들에게 참고하라고 나누어 준다.

환영: 참가자들에 대한 환영에는 공부 인도자가 말로 하는 인사와 소개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아이스브레이크 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 첫 두 번의 모임 이후에는 인도자의 환영 이외에 참가자들이 이 시간을 이용

해서 각 모임에 주어진 내용들을 얼마나 숙지하고 또 헌신했는 지를 알아보는 “점검”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도 역시 환영의 일부이다. 의자들을 반원형으로 배치할 것을 고려한다. 입구 부근에는 자료 테이블 위에 성경책과 유인물들을 놓고 참가자들이 모임에 사용할 수 있게 펜과 연필과 이름표와 마커들과 수업 진행표와 출석표를 놓는다. “환영”이라고 칠판이나 큰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 놓는다. 원한다면 부드러운 현대 악기로 연주되는 예배 음악을 참가자들이 모이는 시간이 틀어 주도록 한다. 세 번의 정해진 휴식 시간에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준비하는 것도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환대받는 느낌을 가지고 편안하게 두 시간의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필요한 물품에 대한 주의: 모임들이 시작하기 전에 인도자는 모든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 두어야 한다. 자료 테이블에 위에서 언급한 물품들 (성경, 유인물, 수업 진행표, 펜과 연필, 이름표, 마커, 그리고 출석표와 종이나 흰 칠판에 쓴 환영인사) 이외에도 인도자는 인덱스 카드와 뉴스 프린트, 그리고 바구니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개회 찬송, 기도, 교독문: 이 부분은 짧은 기도, 찬양, 또는 교독문으로 마음을 모으고 우리 믿음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성경: 이 부분은 각 모임에 필요한 성경 구절이다. 이것이 그 모임의 신학적인 틀을 위한 기반이 된다. 참가자들이 읽고 성경 구절을 함께 토론하게 될 것이다.

활동들: 각 모임에는 적어도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준비된 활동들이 있다. 여기에는 노래/기도/성경 구절 묵상, 강의, 소그룹 활동, 또는 비디오 보기가 포함된다.

떠날 때의 묵상: 모임을 마치기 전에, 인도자는 모임 동안에 “생각이 머무는 곳”에 적힌 벽에 걸린 종이 위에 쓰여진 주제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해 준다. 그 다음에 모임에서는 돌직 짝을 짓거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삶에 적용할 질문들(Making Connections Questions) 중에서 적어도 한 두 개를 가지고 토론한다. 인도자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 지 보고 시간을 제한해 준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보고할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인도자는 기도 혹은 묵상으로 모임을 마친다.

내 삶에 적용할 질문들: 이 질문들은 여러 기능이 있다.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더 깊은 신학적 성찰을 하게 하고, 공동체에 참여할 적절한 수단을 정하게 하고, 교회가 징검다리 혹은 장애물의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보게 한다.

각 장 요약: 이 부분은 인도자를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은 모임에서 사용된 쫓겨남의 해당 장(들)의 요점을 요약해 주고 인도자가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새롭거나 까다로운 개념들을 강조해 준다.

후주

1. 더글라스 에이 블랙먼(Douglas A. Blackmon), *다른 이름의 노예제도: 남북 전쟁부터 제 2차 세계 대전에 이르기까지 흑인 미국인들의 재 노예화* (뉴욕: 더블데이, 초판, 2008), 41쪽.
2. 미국 수정헌법 13조.
3. 제이 맨씨니 매튜(J. Mancini Matthew), “인종, 경제, 그리고 죄수 임대 제도의 폐지,” *저널 오브 니그로 히스토리* 63호, 4권 (1978): 339쪽.
4. 마리암 라이트 에델만(Marian Wright Edelman), “요람에서 감옥까지 파이프라인: 미국의 건강 위기,” *고질적 질병 예방* 4호, 3권 (2007년 7월): A43. ncbi.nlm.nih.gov/pmc/articles/PMC1955386.
5. 에델만(Edelman), “요람에서 감옥까지 파이프라인.”
6. *플레시 대 퍼저슨(Plessy v. Ferguson)*, 163 U.S. 537 (1896).
7.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부(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347 U.S. 483 (1954).
8. “감리교 여성: 은혜의 자매 관계, 선교 여성의 역사,” 2014년 3월 20일 게시 또는 개정된 내용, unitedmethodistwomen.org/news/methodist-women-sisterhood-of-grace.
9. 그로버 제이(Grover J). “러쓰(Russ) 화이트허스트(Whitehurst) 외, “브라운 대 교육부 사건 60주년, 미국 공립학교는 인종적으로 얼마나 균형이 잡혀있는가?” 브룩킹스 연구소 2017년 11월 20일, brookings.edu/research/60-years-after-brown-v-board-of-education-how-racially-balanced-are-americas-public-schools.
10. 제임스 엠 워싱턴(James M. Washington) 편. *희망전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중요 저술과 편지들 모음, 75주년 기념호* (뉴욕: 하퍼콜린스, 1991), 289쪽.
11. “왕국” 대신 “가족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주의. 이 용어는 처음에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Ada Maria Isasi-Diaz)가 만들었다. 이 용어는 관계성, 공동체성, 그리고 형평성을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으로 강조한다.
12. 월터 제이 휴스턴(Walter J. Houston), “사회 정의와 예언자들,” 미출판물, 2018년 5월 8일 인용, bibleodyssey.org/passages/related-articles/social-justice-and-the-prophets.
13. 데나 엠 그로멧(Dena M. Gromet)과 존 엠 달리(John M. Darley), “처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범죄의 심각성의 중요성과 사람들의 법적 반응에 나타난 공유된 정체성,” *오스트랄리안 저널 오브 사이콜로지* 61권, 1호 (2009): 50쪽.
14. 사라 이 보스래프(Sarah E. Boslaugh), “회복적 정의” *살렘 프레스 백과사전* (카마릴로, 캘리포니아: 살렘 미디어 그룹, 2019).
15. 요한 웨슬리 (1703 - 1791), *노예제도에 관한 생각* (필라델피아: 요셉 크룩셱크, 1774), smu.edu/Bridwell/SpecialCollectionsandArchives/Exhibitions/WelcomeAdditions/Methodist/OnSlavery.
16. 토마스 슈르마허(Thomas Schirrmacher), “구약, 신약, 그리고 역사에 나타난 노예제도,” *복음주의 신학 리뷰* 42권, 3호 (2018): 225 쪽.
17. 넬 어빈 페인터(Nell Irvin Painter), *흑인 미국인들 만들기: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역사와 그 의미들*, 1619에서 현재까지 (뉴욕: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2006), 21쪽.
18. 슈마허(Schirrmacher), “구약, 신약, 그리고 역사에 나타난 노예제도,” 229쪽.
19. *연합 감리교회 장정-2016* (내쉬빌: 연합 감리교회 출판사, 2016), 15쪽.
20. 모리스 엘 데이비스(Morris L. Davis), *감리교 통합 기독교와 짐 크로(Jim Crow) 시대의 인종정책* (뉴욕: 뉴욕 대학 출판부 Press), 131쪽.
21. *은혜의 자매 관계: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프로그램 북*, 2018 - 2019 (뉴욕: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2018), 5쪽.
22. 샬리 디크(Sally Dyck), *거룩한 모임의 여덟가지 원칙들: 교회와 그룹들을 위한 공부 교재* (연합감리교회: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 2012).

첫째 모임: 생존을 위한 몸부림

학습 목표들

1. 흑인 소녀들을 범죄화하는 것을 뒷받침 해 온 역사적 및 사회 정치적인 기반 이해
2. 개인적 결정에 있어서 사회화와 암묵적인 편견의 역할 이해
3. 양성과 교차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하는 것
4. 빈곤과 성과 인종의 상호작용을 토론하는 것

참여 규칙들 (5 분)

각 그룹은 함께 하는 활동으로 참여 규칙들을 만드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룹을 하나로 만들어 준다. 그룹에서 첫 번 모임에서 정하는 참여 규칙들은 모임 전체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을 그룹에서 토론할 때, 단지 그것들을 나열하지 말고 인도자는 이 공부 기간 동안에 참가자들이 서로에 대한 언약을 맺을 것에 동의해 줄 것을 부탁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종종 성경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한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브리트(berith)*에서 나온 말로 문자적으로는 “자르다”는 뜻이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되었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창세기 6:18). 선지자 예레미야도 역시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예레미야 31:31 - 33에서 언급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언약관계에 있을 수 있다. 언약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관계를 맺는 일이다. 기독교인들로서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은 관계를 통해 형성된 관계 속에 서로 들어가 있다. 이 공부하는 동안은 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확대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역의 해결 방안을 같이 발전해가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룹들이 자기들 언약의 기반으로 은혜의 여성 공동체: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프로그램 북, 2018 - 2019에 나오는 언약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은혜의 여성공동체 언약

- 경청한다 - 머리와 가슴으로.
-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말한다.
- 바디 랭귀지, 즉 몸의 언어에 주의한다.
- 비밀 보장을 존중한다.
-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한다.
- 자기의 의도와 자신이 한 말이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다.
- 환경 보존을 위한 삶의 태도를 실천한다.
-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을 기대한다 - 불편함과 기쁨을 둘 다 가지고.¹

은혜의 여성 공동체 언약은 종이 위에 미리 적어서 벽에 걸어 둔다. 인도자는 참가자들과 대화에 참여해야 하며 그들에게 각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혹은 그것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보이는 지를 묘사해 보라고 부탁한다. 그룹에서 모든 문장들을 설명한 후에는 인도자는 참가자들이 그 언약에 더할 것이 있는 지를 물어보고 나서는 그 종이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킨다. 모든 내용이

기록된 후에 언약은 만장 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 인도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언약에 동의하는 지를 묻고 그것을 모임 기간 내내 존중할 것인지를 묻는다. (이것은 공식적인 표결이 될 수도 있고, 인도자가 다른 식으로 그룹으로부터 확인/동의를 구해도 좋다.) 만약 모임을 위한 정해진 장소가 있으면 은혜의 여성 공동체 언약은 벽에 그대로 붙여 두어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인도자가 그것을 각 모임 시작 전에 벽에 붙여 두어야 한다.

*밀어내기*는 힘든 대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동요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이과에서 다룰 서론은 경찰관이 자기 엄마를 땅바닥에 내던질 때 한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내용을 묘사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이 책에 담긴 마찬가지로 마음을 뒤집어 놓는 여러 이야기들 중의 첫번째 이야기이다.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이 대화들 중의 어느 것은 깊은 감정을 자극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필요하면 아무 설명 없이 잠시 교실을 나갔다 와도 좋다고 미리 말을 해 둔다. 인도자는 또한 참가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밀어내기*에서 다루어진 것을 상기시키고 그러므로 혹시 당시에 진행되는 토론에 꼭 관련이 되지 않는 질문이나 할 말이 생기면 나중에 적당한 때에 토론하도록 기록해 두도록 한다. 이것은 “생각이 머무는 자리”라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자는 콘 종이 한장에다 “생각이 머무는 자리”라고 적어둔다. 토론 주제와 관련없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면, 인도자는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그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다음, 그것이 그 당시에 토론되지 않을 것을 알려 준다. 그러면 참가자들은 그 내용을 종이 위에 적어 두고 그것을 생각이 머무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모임이 끝날 때 인도자는 그 내용이 모임 중간에 이미 대답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살펴보고,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이야기한다. 참가자들에게 생각이 머무는 자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룰 시간이 충분히 없을 것임을 이야기한다.

모임 요약 (10 분)

인도자는 모임 요약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서 중요 요점의 개관을 제시해 주고 사진들을 표시하고 그것들을 참가자들에게 돌려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읽거나 중요 요점을 같이 토론하도록 한다.

이번 모임은 이 교재를 위해 탄탄한 기초를 놓는다. 그것은 흑인 여학생들의 행동을 범죄화하는 문제를 개관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선례를 거쳤는지를 보고 앞으로 의식을 깨우고 이해시키고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선교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고 참가자들에게 문화, 맥락, 사회화, 억압의 종류들, 그리고 암묵적인 편견 등의 밑에 깔린 개념들을 소개한다.

이번 모임은 *밀어내기*의 서론과 “제 1 장: 생존을 위한 몸부림” 둘 다를 다룬다. 그 내용들은 이곳에서 따로 요약될 것이다. 그러나 첫째 모임 동안에는 서론과 제 1 장이 한 묶음으로 토론될 것이다. 종종 독자들은 책의 서론을 훑어 보고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고 싶어하지만 인도자와 독자들은 *밀어내기*의 서론을 주의깊게 읽을 것을 권장한다. 다른 많은 책들의 서론과 마찬가지로, *밀어내기*의 저자인 모니크 모리스(Monique Morris)는 그 책의 기초를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각 장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개관하고 있다. 그녀의 서론에서 모리스(Morris)는 또한 현재의 사회정치적인 그 책의 맥락을 제시해주면서 독자들이 2015년 여름에 육군 상병 에릭 카세볼트(Corporal Eric Casebolt)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공격당하고 땅에 내동댕이쳐진 14살짜리 데헤리아 벡톤(Dejerria Becton)에 대한 일면 기사에서 빼낸 이야기에 바로 빠져들게 한다 (1쪽). 그녀는 동시에 흑인 소녀들의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역사 및 법적 맥락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사회 정치적 맥락: 데헤리야 벡톤(Dejerria Becton)에게 가해진 일은 2015년에 일어났다. 그 당시에 그 비디오는 급속히 퍼졌고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었다. 소셜미디어의 바뀌는 속도가 늘 그렇듯이 곧 새로운 소식이 그것을 대치해 버렸다.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도자는 이 이야기를 다른 언론 자료이 다른 기사를 읽거나 보기를 권한다. (미리 경고하는데, 이 비디오는 특히 보는 것만으로도 충격이다.) 다음의 주요 뉴스를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라: 월스트리트 저널 무삭제 원본 비디오; 맥킨니(McKinney) 풀파티 급습 장면을 찍은 비디오가 입을 열다; 맥킨니(McKinney) 경찰이 풀파티 비디오에서의 행동으로 사임하다; 풀 파티에서 땅에 내동댕이쳐진 십대가 텍사스 경찰과 시를 상대로 5백만불의 소송을 걸다; 2015년에 가혹행위를 당한 텍사스의 십대가 마침내 자신의 풀 파티를 하게 되다.

비키니를 입은 아이를 경찰관이 땅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을 본 충격과 상처를 넘어서 이 장면은 일련의 다른 질문들을 불러 일으킨다: 무엇이 그의 행동을 촉발시켰을까? 데헤리야(Dejerria)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경찰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경찰 당국은 무엇을 하였는가? 이런 폭력을 보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폭력과 부정의를 직접이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사적 맥락: 모리스(Morris)는 흑인 소녀들을 교육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적 시각을 제시해 준다. 그녀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린 브라운 대 교육부(Brown v. Board of Education) 재판을 소개하지만 동시에 브라운 판결 이전에 여자들이 교육을 받거나 여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는 지에도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그녀는 밀어내기의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다: “브라운 대 교육부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도 인종과 성에 따른 불평등이 만연해 있음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거나 불분명했던 몇 가지 진실들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 목표는 너무 오랫동안 저소득층의 유색 인종의 소녀들을 향해 ‘의도적인 속도 조절’이라는 말해온 궤변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옹호하고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8쪽).

인도자들과, 참가자들과, 독자들은 이런 목적을 마음에 두고 이 공부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풀어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동안 지금이 주님의 받으실만한 해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토론에 초청하고 있음을 언제나 인식해야 한다. 인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으로 영감을 받고 힘을 얻은 아프리카계 미국 기독교 여성들, 가령 캐서린 퍼거슨(Catherine Ferguson, 5-6쪽), 매리 맥리오드 베티(Mary McLeod Bethune, 6쪽) 등이 배움의 장소들을 설립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확장되는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토론”에서 모리스(Morris)는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SPP)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SPP)의 설명을 위한 틀은 “대체적으로 남성들의 상황과 경험에서 발전된 것이다”라고 한다. 모리스(Morris)는 흑인 소녀들을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대화와 문제 해결에 포함시켜서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성별에 특화되고, 연령에 알맞는 분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그녀는 학교 처벌 규정들, 특히 무관용 정책, 배제 정책, 학교내 경찰 등을 논하고, 덧붙여 통계적인 자료들을 제공한다.

중요 용어들

인도자들은 다음의 중요 용어들과 그 정의들이 담긴 유인물을 복사해서 (부록 A 참조) 중요 용어 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 i.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 (SPP)
- ii. 학교에서 수감 시설로 가는 길들
- iii. 교차성
- iv. 내면화된 인종 억압
- v. 구조적 불평등
- vi. 암묵적인 편견
- vii. 대량 수감
- viii. 유색인종 공동체의 범죄 집단화

환영 (20 분)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것에는 인도자가 말로 환영한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서로 인사하는 일과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서로를 알아가는 활동이나 앞으로 다룰 주제들에 대한 간단한 토론이 포함된다. 참가자들을 환영한 후에는 인도자는 간단하게 먼저 자기 배경을 소개를 하고 자기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나누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 인도자는 돌아가면서 참가자들에게 자기 이름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묘사하도록 부탁한다. 예를 들면 참가자가 “영리한 영숙(Inquisitive Iren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게 한다: 고향은 어디고 왜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인도자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한 후에는 인사를 하게 한다—예를 들면, “안녕, 영숙” 혹은 “반가워요, 영숙”이라고 한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들은 많은 흑인 소녀들의 이름들을 밀어내기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이 소녀들이 비인간화된 많은 방식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름을 서로 불러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우리들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간략한 개관을 통해서 인도자는 중요 용어들 활동을 소개하고, 그것을 모임 후반부에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방을 둘러보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다 같지만 또한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것을 부탁한다. 차이점의 대부분은 문화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가 사회화된 과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에 있어서의 차이와 사회와의 차이는 우리가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문화와 사회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의사소통과 공감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가 누구인가하는 것은 대부분—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의 유형들—우리의 드러난 모습 밑에 있다. 문화적인 감각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중 많은 부분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형성된 것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사회화라고 부른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가족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교육과 종교적 경험 등등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개회 찬송, 기도, 교독문 (5 분)

제시된 개회 기도는 부록 B에 나오는 *인종 정의 대화 지침(Racial Justice Conversation Guide)*에서 나온 기도 중의 하나이다.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기도 중에 실제 혹은 마음으로 일어설 것을 부탁한다.

성경

그룹에서는 기도를 마친후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31:1-17을 읽는다. 인도자는 핵심 구절을 강조해야 한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예레미야 31:15).

중요 용어 활동 (25 분)

서론: 어떤 주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언어는 중요하고 강력한 것이다. 저자인 모니크 모리스(Monique Morris)는 밀어내기를 이해하는데 근본이 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대화하고 그녀의 저술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공통된 어휘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침: 첫째 모임을 위한 중요 용어 정의가 담긴 유인물을 모든 참가자에게 나누어 준다. 각 참가자가 5분 동안 그것을 개인적으로 살펴보게 한다.

I 부: 참가자들에게 짝을 지어서 다시 5분 동안 다음 질문들을 토론 하도록 한다.

생각해 볼 질문들: 어떤 용어들을 이미 알고 있었는가? 어느 용어가 눈에 뜨이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 용어들 중 어느 것에 관해 더 나은 정의가 있는가?

II 부: 이 용어들의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참조해서 그 용어들의 맥락을 살펴 보라. 참가자들은 아래 적힌 밀어내기의 쪽수를 참고로 이 용어들을 찾아 보는데 15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 당신은 중요 용어에 대한 그 전과는 다른 이해를 하게 되었는가? 그 용어를 맥락 속에서 읽고 난 후에 특히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 i.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 (밀어내기, 9, 11, 12쪽):**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유색인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제도와 기관들에 의해서 교육적인 성공에서 멀어지고 형사정의 제도로 길을 바꾸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 ii. **학교에서 수감시설로 가는 길들 (12, 14쪽):** 학교에서 감옥으로 가는 파이프라인과 비슷하지만 더 넓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수감 시설은 전통적으로 이해된 수감 시설들(형무소나 감옥 등)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가택 감금이나 전자발찌, 의무적인 집단 수용시설 거주 등 소녀들이 경험하는 제한된 활동의 여러 형태들을 포함한다.
- iii. **교차성 (23, 24 196쪽):** “교차성”이라는 용어는 1989년에 김벌리 크렌쇼(Kimberle Crenshaw)라는 인권 운동가이자 법학자가 만든 용어이다. 교차성은 경험, 특히 억압과 차별에 관한 경험

의 복잡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그룹이 가지는 정체성과 경험의 중복성을 설명하고 있다.

- iv. **내면화된 인종 억압** (43쪽): 유색인들이 자기들과 다른 유색인들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는 인종적으로 억압된 신념, 습관, 태도, 그리고 행동들; 그리고 유색인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종적인 억압을 구체화하는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념적 혹은 제도화된 억압의 형태를 사용할 때 사용된다.
- v. **구조적 불평등** (48, 67 쪽): 제도나 기관들이 모든 이들을 위한 평등하고 형평에 맞는 선택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vi. **암묵적 편견** (50, 51, 183 쪽): 행동, 태도, 신념, 생각, 그리고 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의식하고 있지 않는 편견을 뜻한다.
- vii. **대량 수감** (14, 181쪽): 미국 내에서 감옥으로 보내지고 갇히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 (1970년 대 후반부에 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됨)을 말하는데, 그와 함께 감옥도 늘어났고, 유색인 특히 흑인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력에 대놓고 진실을 말하기 (25 분)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우리는 예레미야가 비록 처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말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명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인 예레미야 31:1 - 17에서는 자기 상황 속에서 진실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자신의 책을 통해서 모리스(Morris)는 예언자적으로 말하고 우리에게 정의를 향해 방향을 제시한다. 그녀는 가혹한 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흑인 소녀들을 학교에서 밀어내서 캄캄한 상황 속으로 몰아내는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 모리스(Morris)가 *밀어내기*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진실들이 있다. 그녀의 저술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아래서 읽으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진실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임 전에 인도자는 이러한 진실들을 큰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 두어야 한다.)

1. 노예 제도의 전통이 문화적 전통이 남아 있다. 흑인들은 이러한 전통 때문에 열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생각은 흑인 감시법, 짐크로(Jim Crow) 법, 그리고 최소양형제도 등으로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2. 교육은 중요한데 흑인 여성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교육을 받고자 한다는 전통이 있다.
3. 법률들이 흑인 소녀들의 교육 경험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공을 표준 학력 고사로 측정하는 것이다.
4. 흑인 여성성에 대한 복잡하고 공평하지 않은 기준들이 있다.

참가자들이 *밀어내기*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읽을 때 위에서 읽은 진실들과 아래서 읽은 발췌문들 사이에 연결을 하도록 하고 그들이 읽으면서 찾아낸 다른 진실들을 말하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의 마지막 활동을 통해서 생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활동은 소그룹이나 둘이 하나가 된 조에서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필기 도구와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흑인 여성성에 대하여: “법적인 흑백 분리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흑인 소녀들은 전국적으로 학교와 교실에서 적어도 자기들의 경험으로 형성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경험으로 규정된 해로운 스테레오타입에 종속되어 왔다. 흑인 소녀들의 교육을 경험하는 방식들은 백인 중산층의 기준에 우호적인 계층구조에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에 60년 동안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붕붕 떠다녔다. 패트리샤 힐-콜린스(Patricia Hill-Collins)가 적었듯이, ‘모든 여성들은 중산층, 이성애자, 백인 여성성을 규범적인 것으로 보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흑인 여성성은 단지 백인 여성과의 관계에서만 아니고 동시에 다른 많은 관계들, 즉 모든 남성, 성적인 반란자들 (창녀들과 동성애자들), 미혼 여성들과 소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하위 종속 성적체성으로 규정되었다’” (8쪽).

교육의 해방시키는 능력에 대하여: “대법원이 브라운 대 교육부(Brown v. Board of Education)의 판결을 내리기 오래 전에 흑인 여성들은 교육의 해방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분명했다. 노예 제도 하에서 아프리카계 자손들의 교육은 불법이었고 주노예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범죄로 여겨졌다. 조지아 주에서는 노예인 아프리카인들과 다른 유색 자유민들이 글로 쓰이거나 인쇄된 글자로 쓰여진 문헌을 읽는 것이 발각되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벌금형이나 채찍형에 처해졌다 [조지아주 노예 법, 1848]. 이런 사회에서 독서는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노예제도의 논리에 도전하는 것이며 흑인들의 전제된 열등성에 도전하는 일이었다. 많은 노예 흑인 여성들에게 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며 자기들이 학자들과 문헌들과 성경에 나오는 제도들에 대한 도전에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많은 흑인 여성들이 교육에 헌신하는 열정은 아주 강해서 때로는 감옥에 가거나 단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처벌을 받는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였다” (5 쪽).

학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학자가 되는 것은 흑인 미국인들에게는 위험한 명제였고 수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읽고 쓰기 위해서 죽어갔다. 질 좋은 교육에 대해 남아 있는 장벽들과 다세대에 걸쳐서 학교에서의 성적에 관해 내면화된 생각과 합쳐진 상처는 아직도 충분히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차단한 것은 문서 기록으로 남아 있고 공공 여론이나 사회 과학의 법정에서든 사법 제도의 법정에서든 판결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도전 받았다” (7 쪽).

입법에 대해서: “낙제 방지법”(The No Child Left Behind Act)은 2001년도에 초중등 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을 다시 확인한 입법인데, 학력 평가를 우선시하고 학생의 성취도를 이러한 평가 점수 하나에 연계시키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낸 시대를 도래하게 한 법이다. 표준 평가제도에 더욱 의존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공정하고 개방적인 평가를 위한 전국 센터>(National Center for Fair and Open Testing)에 따르면, 이런 제도 때문에 유색 인종의 청소년들은 유급(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일)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주 단위로 치루어진 학업 성취 표준 시험에 대한 전국 토론회에서 대체적으로 무시된 사실은 흑인 여학생들이 그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어 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진급이나 졸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다. 전국 표준 평가에서의 성적은 소녀들 사이에서 인종적인 편차를 드러낸다. 이러한 논란이 많은 단 한 번의 지식 평가는 흑인 여학생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일을 중단하게 하거나 자기들은 학교를 마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내면화하게 만든다. 그들은 ‘학교는 나에게 맞지 않아’라든지 ‘나는 학교에서는 절대 잘 할 수 없어’ 등의 말을 하게 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성적은 다른 많은 요인들, 가령 사회경제적인 상황, 다른 학습 스타일, 학교에서의 수업의 질, 시험 문제들의 경향이나 출제 방식, 그들 자신의 정신 및 신체 건강, 그리고 초기 아동 교육에의 접근성에 있어서의 차이들에 달렸을 수도 있다” (33 쪽).

그녀의 이름을 말하자 (20 분)

모임 시작 전에 인도자는 밀어내기의 제 1 장에 소개된 이야기들에 나오는 개별 소녀들의 이름들을 인덱스 카드에 적고 그들의 이야기의 쪽수를 그 옆에 적는다: 다니샤(Danisha, 16 - 17쪽); 포르티아(Portia, 27 - 29쪽); 파리스(Paris, 29쪽); 데스티니(Destiny, 39 - 42쪽); 미아(Mia, 35 - 37와 47 - 50쪽); 샬니스(Shanice, 37 - 38쪽); 재지(Jazzy, 43 - 46쪽); 샬논(Shannon, 50 - 51쪽); 그리고 페이스(Faith, 52 - 55). 인도자는 전체를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에 인덱스 카드를 주고 각 그룹이 그 이야기를 읽고 함께 다

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리고는 전체 그룹으로 모여서 각 그룹에서 대표자 한 사람이 자신들의 응답들을 나누는 것을 듣도록 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들

이 이야기에서 주요 등장인물들은 누구인가? 어떤 제도와 기관들이 개입되어 있는가? 그 소녀는 자신의 경험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떤 정보가 빠져 있는가?

떠날 때의 묵상 (10 분)

모임을 마치기 전에, 인도자는 “생각이 머무는 장소”에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요점을 가진 주제들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다음 인도자는 그룹들을 짝을 짓거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아래 있는 내 삶에 적용할 질문들 중에서 하나나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 주고,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 군데 모아서 각 조 혹은 소그룹의 보고를 듣는다.

내 삶에 적용한 질문들

- 당신은 밀어내기에서 나는 이야기들에서 입증된 어떤 구조적 불평등을 보았습니까?
- 당신은 “착한 소녀”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 당신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디서 가난이 구체화된 것을 봅니까?
- 당신은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과 학교에서 수감시설로 가는 길들 사이의 어떤 차이점들을 봅니까?

시간이 허락되면, 인도자는 그룹을 전체 모아놓고 간단히 각 그룹이 보고를 하도록 한다.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큰 종이에 기록해서 벽에 붙여두고돌 해서 중요 학습 및 묵상 내용들은 모임 전체 기간 동안 볼 수 있게 한다. 만약 그 종이를 벽에 붙여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면, 인도자가 그것들을 매 모임 전에 다시 붙여 놓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모임을 마칠 때는 인도자는 이런 내용의 말을 할 수 있다: 이번 모임에서 그리고 모임에서 다룬 밀어내기의 해당 장들에서, 우리는 흑인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및 사회 정치적인 저변에 흐르는 내용들을 배웠다.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갈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여정이 진실하고 연대성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의 암묵적인 편견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추가 모임 자료에서 “떠날 때의 묵상들”에 있는 자료 참조). 그런 작업은 혼자 이루어 지지 않도록,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서 서로 책임을 지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 매일 묵상들-도전들에 대한 묵상, 배움의 순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의도와 영향 사이의 차이에 대한 배려 등을 해보라고 초청한다.

모든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면, 인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는 기도를 하기 위해 큰 원을 만들도록 한다. 인도자는 자원자에게 기도를 시작하도록 부탁하고는 각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계속하게 한다. 인도자는 마무리 기도를 하고는 참가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밀어내기의 제 2 장을 다음 모임을 위해 읽으라고 권면한다.

각 장 요약

“제 1 장: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상당한 양의 자료를 다룬다. 비록 이 장의 열 단락에서 다양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 장은 흑인 소녀들의 정체성, 문화, 교차성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된 이야기들과 개념들의 요약이 있다.

제 1 장은 다니샤(Danisha)라는 11살된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녀는 모니크 모리스(Monique Morris)가 수용 시설에서 만났다. 다니샤의 이야기는 그녀가 모리스가 쓴 소설을 읽은 후에 감동을 받아 자신의 “창녀촌”을 떠나기로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장은 또한 독자들에게 17살 된 포티아(Portia)와 젊은 성인인 파리스(Paris)를 소개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양성이라는 개념과 성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그것들이 “흑인 여성들과 소녀들의 경험을 알려주는 세번째의 주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29 쪽). 우리는 또한 미아(Mia)라는 중학생과 15살의 샬리스(Shanice)를 만나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 안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소녀들의 필요와 희망을 충족할 수 없는 질이 좋지 않은 학교 제도 안에 있는 학생들의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데스티니(Destiny)의 이야기는 다른 학교 학생 구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성취도가 높은 큰 공립 학교”의 학생이다. 그녀는 소수에 속하면서 무시된 경험을 나눈다. 이 이야기는 정신적 충격과 공립 학교에서의 훈육 과정, 그리고 소년원에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은 또한 재지(Jazzy)라는 소년원의 “특별 감호” 시설에 수감된 십대 아이를 만난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면화된 억압과 흑인 미국인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대화의 틀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샬론(Shannon)이라는 쓰기를 거부하는 1학년 학생과 15살 된 페이스(Faith)가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암묵적 편견, 고정관념화, 문화적 감수성, 여성 정책, 그리고 어린아이의 권리에 대한 옹호라는 개념들을 소개한다.

공부 인도자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복잡한 개념들과 문제되는 상황들을 논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상황에 사람의 얼굴을 대입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추상적으로 이 책을 토론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야기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우리를 멀리서 바라만 보는 입장에서 이 소녀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이 과에서 탐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위한 출발점을 제시해 준다. 예를 들면, 문화, 암묵적인 편견, 교차성 (인종, 성, 가난, 그리고 연령), 그리고 양성 등. 이야기들을 토론할 때, 참가자들이 밀어내기에 나오는 여인들과 소녀들의 삶의 세부적인 내용에 빠져들기가 쉽다. 그러므로 인도자가 역사적인 상황은 물론 이 이야기들이 제시하는 제도적인 문제들과 그 소녀들을 토론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자는 자비와 정의 사역 둘 다의 가능성을 토론하도록 권하고 이 소녀들을 돕는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자비의 사역과 동시에 그 토론을 뿌리가 되는 원인들과 제도적인 문제들과 제도적인 해결책(가령 법률적인 사역들)으로 방향을 틀 것을 권하여야 한다.

후주

1. 은혜의 여성 공동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프로그램 북, 2018-2019 (뉴욕: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2018), 5 쪽.

둘째 모임: “태도” 만으로도 죄가 되는 흑인 여학생을 위한 애가

학습 목표들

1. 무관용 정책과 다른 배제 정책의 입법 및 사회 정치적 역사를 이해하고 이러한 법들과 정책들의 파생된 피해를 이해하는 것
2. 흑인 소녀들을 위한 건강한 배움과 교육을 지원하는 절차들과 교육방법을 논의하는 것
3. 흑인 소녀들의 내면화된 억압을 극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치유의 구조와 긍정적인 자부심을 형성하는 방법을 토론하는 것

참여 규칙들 (5 분)

첫째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은혜의 여성 공동체 언약을 살펴보고 그것을 자기들의 모임의 필요에 따라 고쳐서 채택한 후에 합의할 기회를 가졌다. 인도자는 그 합의된 언약을 모든 참가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아직도 모임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인도자는 그것을 모임과 함께 다시 자세히 모임 시작 전에 다시 검토해 볼 것을 권한다. 셋째나 넷째 모임쯤 되면 자세한 검토는 아마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모임의 도입부에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대화든지 깊은 감정을 자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설명할 필요없이 교실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참가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인도자는 “생각이 머무는 장소”라는 제목이 붙은 큰 종이를 붙여 놓는다.

모임 요약 (5 분)

인도자는 모임 요약 내용을 큰 소리로 읽고 중요 요점들을 개관해 주면서 참가자들과 나누어야 한다. 아니면 복사를 해서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중요 요점을 함께 토론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교육 제도의 복합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정책들을 형성했던 법들, 특히 무관용 정책과 그것이 흑인 여학생들에게 미친 치명적인 영향과 흑인 여학생들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고정관념 등을 검토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다른 형태의 억압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것들이 *떨어내기*에 이야기가 소개된 아이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흑인 여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볼 것이다. 그들은 흑인 여학생들의 기를 살려주는 학교를 상상해 보고 어떻게 창조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지 상상해 보라고 부탁받을 것이다. 참가자들은 또한 “애가”라고 하는 히브리 전통에 대해서 묵상할 것이다.

이번 모임은 “제 2 장: ‘태도’ 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흑인 여학생들을 위한 애가”에 초점을 둘 것이다. 모리스(Morris)는 노트자케 쉐인지(Ntozake Shange, 1948 - 2018)가 쓴 *무지개만 떠도 자살을 생각하는 유색인 소녀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와 시와 춤을 합친 무용사에서 그 제목의 영감을 받았다.

중요 용어들

인도자들은 다음의 중요 용어들의 정의가 담긴 유인물들을 나눠 주어야 한다 (부록 A 참조). 이런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해 줄 것이다.

- i. 무관용 정책들
- ii. 차별적인 훈육 관행
- iii. 다세대에 걸친 정신적 충격

환영 (20 분)

매 번 모임의 환영과정은 같은 요소들을 담고 있다: 인도자에 의한 구두 환영, 필요에 따른 소개, 그리고 간단한 그 모임이 다룰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제 겨우 두 번째 모임이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은 아직도 다른 참가자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소개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인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표를 부착할 것을 상기시킨다.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참가자들이라도 소개를 위한 활동인 <당신의 14살된 자아>는 모임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모임 크기에 따라 다렸음을 주의하라.

이 활동을 위해서는 인도자는 자신이 14살 때의 기억을 나누면서 소개한다.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들썩 짝을 지라고 한다. 그리고 각 조에서 한 사람이 자기들이 14살 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라고 한다: 당시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영화나 텔레비전 쇼는 무엇이었나요?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듣는 참가자는 대답을 받아 적는다. 2분 지난 후에 서로 역할을 바꾸어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한 조가 서로 나눌 기회를 가지고 나면, 인도자는 모임을 다시 모아서 각 참가자들에게 상대의 이름과 그 대답들을 나누면서 자기 상대방을 소개하게 한다. 모임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게 한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아이린(Irene)” 또는 “환영합니다, 아이린(Irene)”하는 식으로 하자. 인도자는 그 후 사람들이 좋아했던 과목이나 영화나 텔레비전 쇼들을 나누게 하고, 그들이 14살 때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 기술이 무엇이었는 지를 나누게 한다.

개회 음악, 기도, 교독문 (10 분)

자신의 기구 (스마트 폰 또는 컴퓨터, 원하면 스피커까지)를 사용해서, 유튜브에서 니나 시몬(Nina Simone)이 노래하는 “오해하지 마세요(Don't Let Me Be Misunderstood)”를 찾아서 그룹을 위해 틀어준다. (시몬 [Simone]은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인데 잘 알려진 재즈와 블루스 가수이자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다.)¹ 참가자들 전원에게 그 노래의 가사를 묵상해 보라고 한다. 그리고는 각 참가자가 오해받은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고 그 주제에 대해 기도문을 쓰게 한다.

성경

모임에서는 개회 음악을 들은 후 성경을 읽는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피 주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5:1).

역압을 살펴보기 (30 분)

제도적인 역압이 모리스(Morris)가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수감시설로 가는 길들의 일부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가난을 통해서 학교에서 역압이 만연해지는 방식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념적인 역압, 기관에서의 역압, 그리고 상호 관계적인 역압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살펴 볼 것이다.

시작하면서 인도자는 세 자원자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역압의 정의를 읽도록 부탁한다. 각 정의를 읽고는 아래에 주어진 *밀어내기*의 해당 예를 덧붙인다.

- 이념적인 역압: 생각들과 신념들이 역압으로 구체화 된 것(예: “흑인들은 똑똑하지 않다”).
- 기관에서의 역압: 정책과 시설에서의 역압이 자행되는 것(예: “불심검문” 정책).
- 상호 관계적인 역압: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의 역압 (예: “너는 흑인 소녀니까 그런 것을 입을 수 없다”).

이념적인 역압

예: 흑인 소녀들은 열등하다는 생각.

학자들 사이에서, 법에 걸린 흑인 소녀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혹은 “하위 10분의 1”의 일부로 묘사된다. 그들은 또한 “구제불능”에다 “신경증에 걸린” 사람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암시되는 것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내재된 것이며 그들의 환경의 맥락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교정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흑인 소녀들은 내팽겨쳐진 아이들로 여겨지거나 지오프 워드(Geoff Ward)에 의하면 “백인 청소년들의 수감된 경험과 비교해서 연장된 시간동안 수감 시설에 머무른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교육의 한계와 노동 시장의 기회가 제한된 상황이 그대로 있는 한 계속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들로 묘사 된다 (142 - 43 쪽).

기관에서의 역압

예: 복장 규정

2013년 9월에, 7살의 티아나 파커(Tiana Parker)는 오클라호마 주 털사(Tulsa)에 있는 학교에서 여러 가닥으로 끈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 당했다. 그녀의 작은 지역 공립학교는 복장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다. “끈 머리, 복은 머리, 민 머리 등등 유별난 머리 모양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해 몇 달 뒤에는 12살난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바네샤 반다이크(Vanessa VanDyke)가 아주 큰 아프리카 스타일의 머리를 한 것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92 쪽).

상호관계적인 역압

예: 그녀는 더디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시카고에 있는 샤이(Shai)는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암시를 받는다. “(내 학교는) 대부분 백인들이 다닌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렇다, 나는 수학은 엉망이다. 그런데 작은 수지(Suzie)가 답을 틀렸을 때는 ‘아... 네 답이 틀렸구나’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내가 답을 틀렸을 때는, 그것은 마치 ‘오, 재는 더디. 뭐가 잘못되었나?’ 하고 말하는 것 같다. 나는 화가난다. 첫째는 내가 이미 그들에게 수학을 못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내가 더디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보고 지진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정말 교육을 진지학 받아들인다 (86 쪽).

인도자는 참가자들을 소그룹이나 짝으로 나눈다 (아니면 모임의 숫자가 작을 때는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라고 한다). 그리고는 *밀어내기* 83-92쪽에 나오는 소녀들 중 한 명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준다. 지나(Gina), 프랜신(Francine), 샤이(Shai), 말라이카(Malaika), 디(Dee), 스테이시(Stacy) 그리고 파리스(Paris) 중 한 명을 할당해 준다. 그들에게 할당된 사람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각 그룹은 학교에서 수감 시설로 가는 길들에 나오는 다른 형태의 억압의 구체적인 예들을 찾기 위해서 15분을 사용한다.

각 소그룹이나 짝이나 개인이 토론하고 예를 찾으면, 인도자는 각 그룹에 큰 종이를 한 장씩 주고 자기들이 나누고 싶은 예들을 적으라고 한 후에, 그들의 예를 전체 모임에서 발표하게 한다.

이상적인 학교 설립 (20 분)

제 4 장에서 모리스(Morris)는 소년원에 있는 학교의 환경에 대해서 소녀들이 하는 말을 요약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년원 학교는 학군이나 지역사회 학교의 질 좋은 배움의 연장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 드러났다. 그 대신 내가 이야기를 나눈 이 소녀들의 많은 아이들이 다루어지는 내용이 반복적이고 또 자기들이 꿈꾸는 미래의 목표나 관심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소녀들에게, 소년원 학교는 그들이 이미 퇴학당한 학군에서 경험한 비생산적인 소외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너는 배울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일반 학교에서보다 더 큰 좌절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여기온 아이들은 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148 쪽).

많은 학교들은 그 구조 안에 이미 도전들을 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전의 활동들에서 경험했고 또 읽었다시피, 흑인 여학생들은 종종 자기들이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런 도전들이 소년원에서는 더 증폭된다. 거기에 맞서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들과 그 이야기들을 더 경청해야 한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은 흑인 소녀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 *밀어내기*에 나온 이야기들에 근거한 학교의 요소들을 검토할 것이다. *밀어내기*에서 우리들은 소녀들의 학교 경험을 수감시설 안과 밖에서 다 들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우리는 소년원 밖의 학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인도자는 모임을 넷 혹은 다섯 명의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으로 나누고는 각 소그룹에게 모든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학교를 꿈꾸고 만들어 보라고 부탁한다. 그들이 자기 학교들을 만드는 동안 그 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형적인 학교 시간표는 어떤 내용이 될까?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지을까? 학칙은 어떻게 적용할까? 학생들의 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 어떤 종류의 과목들을 학교에서 가르칠까? 모든 학생들이 잘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당신의 학교에서는 어떤 다른 면들을 보강하고 싶은가?

각 그룹들에게 전체 모임에 보고하게 한다. 각 그룹이 나눈 후에는 전체 그룹을 놓고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이상적인 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제시된 비전들 속에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이 무엇이었는가?
- 우리가 꿈꾼 학교들과 비슷한 학교를 알고 있는가?
- 무엇이 이런 학교들이 널리 존재하는 것을 막고 있는가?

- 당신은 수감 시설에 있는 학교가 우리들이 이 모임에서 나눈 학교의 비전을 존중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흑인 소녀들을 위한 애가 (25 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애가서를 보면, 그것이 왜 종종 히브리인들을 위한 블루스라고 여겨지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치유와 정체성의 재창조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분노의 표출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애가는 “다섯 애가와, 감동적인 시와,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과 그에 이어진 포로 생활에서 비롯된 고통과 소외에 대한 묵상”으로 이루어져 있다.² 애가서의 시는 각 장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첫 글자가 시작되는 아크로스틱 배열로 쓰여졌다. 아크로스틱 배열은 작가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극심한 슬픔과 절망적인 파괴를 이야기하는데 고나려던 고통을 담아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고대 이스라엘의 애가처럼 흑인 소녀들을 위한 블루스도 위대하신 그 분께 바쳐진다. “성경의 애가와 블루스를 부르는 것”이라는 글에서 다니엘 엘 스미스-크리스토퍼(Daniel L. Smith-Christopher)는 월터 부루그만(Walter Brueggemann)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한다. “애가는 기능 장애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부정이 참아낼 수 없고, 변화가 요구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등장한다.” 스미스-크리스토퍼(Smith-Christopher)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셔야 한다는 애가의 요청은 그 이전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그 어떤 이야기를 회복해 달라는 요청이다.”³

이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흑인 소녀들을 위한 애가를 쓰게 될 것이다. 애가는 여러 요소들을 담고 있음을 주목하라. 고통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기도, 분노의 표출, 이야기의 전개, 그리고 마치는 희망-이 모든 것이 시적인 형태로 들어간다. 먼저 자원하는 이에게 애가서 5:1과 5:11-22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피 주십시오! (애가서 5:1).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뭇짐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 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 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애가서 5:11-22).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떨어내기*에서 따온 다음 인용구를 언급해 준다:

무관용의 문화는 학교 훈육의 거의 모든 면에 배어 있다. 그것은 엄격하고 용서하지 않는 정책으로 성장과 발전과 변화에 의해서 그 존재가 규정되는 인구, 즉 아이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관용 정책이 통과 될 때 흑인 여학생들이 공공 안전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아니었음을 기억해 보라.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독특하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종종 존중받지 못한 느낌에 대한 반응이었던 흑인 소녀들의 “태도”와 “대드는” 행동들은 제도권이나 그런 말이나 행동을 유발한 개인들에 의해서는 실패를 더 가속화시키는 상황(가령 감시를 늘리고, 휴식을 주지 않고, 처벌 규정을 정하는 것 등)을 늘려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94 쪽).

인도자는 참가자들을 둘에서 다섯 개의 소그룹으로 나눈다. 인도자는 각 그룹에게 흑인 소녀들을 위한 애가를 써보라고 부탁할 것이다. 한국어 가로 시작하여 나, 다 등을 첫 글자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한다. 가능한 부분에서는 밀어내기에 언급되는 젊은 여인들과 소녀들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소그룹은 20분까지 시간을 쓰도록 하고 자기들의 애가를 큰 종이에 적어서 벽에 전시하도록 한다. 일단 모든 애가가 다 전시되면, 각 그룹에서 한 명이 자기 그룹의 애가를 읽게한다. 각 낭독이 끝나면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진다. 토론은 필요하지 않다.

떠날 때의 묵상 (10 분)

모임을 마치기 전에 인도자는 내 삶에 적용할 질문들을 큰 소리로 읽는다.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소그룹에서 그 질문들을 묵상하고 토론하게 한다. 소그룹은 자기들의 발견들을 보고하고 인도자는 그것들을 큰 종이에 적어서 강조점을 표시한다. 참가자들에게 이 질문들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내 삶에 적용한 질문들

- 어떻게 교육 제도를 새롭게 생각해서 그것이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 라인이 아닌, 자부심과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기초를 놓는 긍정적인 발견과 배움과 성장의 자원이 되게 할 수 있을까?
- 기독교인 여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상호 존중과 자비와 정의의 관계를 길러내는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 우리는 “불량한 태도”를 지닌 것으로 지난날 전형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미지들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인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는 기도를 위해 원을 만들어 모이라고 부탁한다. “(이사야 11의 정신에 따른) 기도”는 부록 C에서 찾을 수 있다. 참가자들이 떠나기 전에, 인도자는 그들에게 *밀어내기*의 3장과 4 장을 세번째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일어 오라고 상기시킨다. 비록 세번째 모임이 “제 3 장: 교실 안의 이세벨”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제 4 장: 갇힌 곳에서의 배움”에 나오는 <학교에서 수감시설로 가는 길들>을 살펴보는 것은 성 매매에 종사하는 많은 흑인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이런 <학교에서 수감시설로 가는 길들>로 내몰리기 때문에 특히 이 모임의 중요한 맥락을 제공해 줄 것이고, 다른 모임들에서도 관련이 있을 때마다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

각 장 요약

“제 2 장: ‘태도’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흑인 소녀들을 위한 애가”의 목적은 저자인 모니크 모리스(Monique Morris)에 의하면, “흑인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의 불균형을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그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흑인 소녀들은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선입견, 무관용 원칙들과 또한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범죄 행위와 동일시 하는 감독 수단에 의존하는 고강도 차별 위주의 관행들, 그리고 교내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나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 흑인 소녀들의 외모를 범죄시하는 풍토” (57 - 58 쪽).

제 2 장은 6살에서 8살 사이의 세 어린이들-데즈레 왓슨(Desre Watson), 살레시아 존슨(Salecia Johnson), 그리고 즈미야하 릭맨(Jmiyha Rickman)-의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한다-체포되고, 수감이 채워져서, 경찰들에 의해서 구금되고 나서는 강제로 교실에서 끌려 나가는 것이다. 데즈레(Desre)는 너무 작아서 수감이

그녀의 작은 손목에서 미끄러져 떨어져서 그녀는 팔에다 수갑을 채워야 했다.⁴ 살레시아(Salecia)의 “취방 울만한 손목”은 수갑이 채워졌고 경찰 기동대의 차에 실려서 경찰서로 끌려갔다.⁵ 즈미이하(Jmiyha)는 “우울증과 분리 불안 장애로 고생하는 자폐증이 있는 아이”였는데 손과 발과 허리를 묶었다 (57쪽). 이 아이들의 이야기들은 미국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알려진 것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참가자들은 동시에 미아(Mia)를 만나는데, 존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묘사된다. 셸리아(Shelia)도 만나는데, 그녀는 “차별 대우,” 낮은 기대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생각속에서 부정적인 “흑인 여성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65 쪽). 또한 14살된 라티샤(Latisha)를 만나는데, 그녀는 “태도”를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모리스(Morris)는 그리고는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라는 원칙을 흑인 소녀들에게 적용되는 “멋대로 반항하는 태도”와 비교한다.

모리스(Morris)는 자신들의 생각들과 경험들을 그녀와 나눈 시카고에서 만난 젊은 여성들을 소개한다. 그들 가운데는 미셸(Michelle)이 있는데, 그녀는 환경적인 범죄화에 대해서 논하였고, 라일라(Leila)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학교 제도로 하여금 흑인 소녀들을 대하게 하는 가를 강조하였고, 날라(Nala)는 개인적인 사생활의 결여, 수치, 그리고 학교 정책들과 절차들과 환경들이 인종과 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별하는 것등을 지적하였다. 이런 젊은 여성들과 시카고 출신의 다른 이들의 이야기들은 학교 경호원들(school resource officers, SROs)과 감시 기술과 처벌 규정들을 가진 학교에 다니는 흑인 소녀들이 겪는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 형사 처벌 사이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매일 경찰들과 대화하고 지내는 것은 유색 청소년들의 감시를 확대하고 학교 환경에서 감옥 용어(와 문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77 쪽).

테즈레(Desre), 살레시아 (Salecia), 그리고 즈미이하 (Jmiyha)의 이야기 이외에도 제 2 장 서론은 “전국에서 정확율이 가장 높은 10개의 학군 중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장애를 가진 흑인 소녀들이 모든 소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정확율을 기록하고 있다”(58 쪽)는 놀라운 사실을 포함하는, 학교 출석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이 통계는 참가자들에게 교차성—이 경우는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능력의 교차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들은 고분고분하지 않다

모리스(Morris)는 흑인 소녀들과 여성들이 대중 문화와 언론매체와 교육 제도 하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졌는지 하는 역사적 측면을 살펴 보면서 독자들과 흑인 여성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그녀는 또한 “태도”라는 말을 생각한다: “이 책의 목적을 위해서 이 ‘태도’라는 말은 어른들이 어떻게 흑인 소녀들과 상대하는지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흑인 소녀들이 젊은 이이자 학생으로서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하는 지를 보여주는 말로 그 의미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탐구해 볼 것이다” (58 쪽). “지성인이자, 여성주의 이론가이자, 문화 비평가이자, 예술가이며, 작가인” 벨 후크스(bell hooks)⁶의 연구를 대하면서 모리스(Morris)는 언론 매체에와 “화난 흑인 여성의 문화 전달”에서 사용되는 “태도”라는 말을 검토한다.

모리스(Morris)는 또한 학교 행정가들, 교사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의 대화를 제시한다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마르쿠스(Marcus)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교 행정가를 만나는데 그의 발언은 내재적인 억압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학칙 위반 때문에 자기에게 온 흑인 여학생들을 언급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애들은 통명스럽다. 그 아이들은 고분고분하지 않다” (59 쪽). 그의 발언이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화난 흑인 여성”이라는 상투적인 생각이 지배 문화는 물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내면화된 생각 속에도 깊이 박혀 있는 지 하는 것이다 (59 쪽). 모리스(Morris)는 독자들은 작은 대안 학교

로 데리고 가서 “태도”라고 보여질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처벌 대응이 아닌 다른 방식들과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소개한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유색 인종 학생의 수와 “처벌적인 배제 규정”의 사용과의 상관 관계이다(66 쪽). 이것은 암묵적인 편견을 조장한다. 암묵적인 편견은 또다시 규정 적용을 불공평하게 하는 것을 조장한다.

자기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것

그 다음 부분인, “자기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것: 무관용, 멋대로 하는 반항, 그리고 감시”에서 모리스(Morris)는 무관용 정책의 근거가 된 “깨어진 창문” 경찰 이론을 소개한다. 모리스는 1994년에 제정되고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법제화된 총기없는 학교법(Gun-Free Schools Act, GFSA)을 학교 제도에서의 의무적인 최소 형량 제도에 해당하는 법규라고 설명한다. 총기없는 학교법은 1994년의 미국학교 개선법(Improving America’s Schools Act, IASA)의 일부였는데, 교정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학생은 무조건 1년간의 정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들과 학군에서는 이 법을 확대해서 사소한 규정 위반에도 지나친 처벌 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법제화된 다른 법들이 감옥 산업과 흑인들의 대량 수감사태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시카고, 당시와 현재

그 다음 부분인 “시카고, 당시와 현재”에서 모리스(Morris)는 교육에서의 인종적 불평등의 존재와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학군인 시카고 공립 학교 제도를 살펴본다. 모리스(Morris)가 적고 있듯이, “시카고는 지금 무관용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힘겨운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처벌 전통을 없애고 배제를 위한 학칙에 의존해온 수년 간에 걸쳐 형성된 흑인 학생의 소외 상태를 줄이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71 쪽). 이 부분에 나오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들은 자신들의 자아 개념과 배우고자 하는 자기들의 욕망을 연결할 때 특히 통찰력이 있는 것들이다. 모리스(Morris)는 특별한 관심을 환경적인 요인들에 두고 있다. 가령 쉬는 시간이 없다든지, 학교에 청원경찰들이 상주한다든지, 감시제도와 출입구 봉쇄 등이 모든 것은 배움과 교육 환경을 돕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사법 행정 제도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일라(Leila)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모리스(Morris)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녀에게 감시는, 학교 안에서 평등과 존중을 통해 안전을 증대하는 집단 문화를 만들어 가는 대신에,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수단이었다”(78 쪽).

잘난 입들과 싸우는 말들

“잘난 입들과 싸우는 말들”이라는 부분에서 모리스(Morris)는 “이전 방식들과 규범들과 싸우려는 의도적인 노력들”을 시도할 필요에 대해서 제 1 장에서 나는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 왜냐하면 “학교들은 그저 지배적인 사회적 개념들과 계급 구조와 억압의 제도들을 재생산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83 쪽). 그녀는 선생들의 부적절한 자극과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리스(Morris)는 선생들이 흑인 소녀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살펴 보았다. 그것은 종종 적절하지도 선생답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흑인 소녀들에게 “태도”라고 여겨지는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몇 가지 경우들을 살펴 보았다. 이 경우들을 보면 선생들이 소녀들을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에서부터 그들을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까지 다양했고 학생들에 의해서 놀림을 받은 소녀들이거나 학교 직원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언어적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 자기 방어를 한 경우까지 있었다.

외모 단속

마지막 부분인 “외모 단속”에서 모리스(Morris)는 복장 규정의 문제를 논한다. 그것은 종종 자의적이거나 불평등하게 적용된다. 그녀는 7살 먹은 티아나 파커(Tiana Parker), 12살 먹은 바네샤 반 다이크(Vanessa Van Dyke), 지나(Gina) 그리고 니콜(Nicole)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 아이들은 끈 머리를 하지 말라는 규정 위반에서부터 제대로 된 신발을 신지 않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들로 처벌되었다. 복장 규정 위반은 특히 해가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이나 안정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종 머리결이나 머리 모양이 유럽인같지 않다거나 학교에서 보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옷을 살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처벌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리스(Morris)에 의하면, “자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누군가하는 것 때문에 좋은 학교에서 배울 자신의 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92 쪽). 모리스(Morris)는 또한 “창녀-수치”라는 용어를 소개하면서 복장 규정의 성차별적인 본질을 논하는데 그것들은 소년들이 “한눈을 팔게 만드는” 일을 소녀들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본다.

후주

1. 니나 시몬(Nina Simone)의 삶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라 biography.com/musician/nina-simone.
2. 아델 베를린(Adele Berlin), 마크 즈비 브레틀러(Marc Zvi Brettler), 마이클 피시뱅(Michael Fishbane) 공저, *유대교 주석 성경: 유대교 출판부 타나 역본* (뉴욕: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2004), 1,587쪽.
3. 다니엘 엘 스미스-크리스토퍼(Daniel L. Smith-Christopher), “성경의 애가와 불루스를 부르기,” *옥스포드 성경 이야기 핸드북*, 다나 놀란 페웰(Danna Nolan Fewell) 편집 (뉴욕: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2016), 555쪽.
4. 밥 허버트(Bob Herbert), “여섯살 짜리가 체포되다,” *뉴욕 타임즈*, 2007년 4월 9일자.
5. 재니스 다알씨(Janice D’Arcy), “살레씨아 존슨(Salecia Johnson), 6살, 짜증났다고 수갑을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워싱턴 포스트*, 2012년 4월 8일자.
6. “벨 후크스(Bell Hooks) 협회 베레아 대학,” bellhooksinstitute.com/welcome.

셋째 모임: 교실 안의 이세벨

학습 목표들

1. 흑인 소녀들과 관련된 강간과 성매매를 논의하기
2. 강간을 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적 억압 장치들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3. 강간 수사 부재를 초래하는 그리고/혹은 장려하는 흑인 여성과 소녀들에 관한 인종적 전형적 편견을 분해하기 시작하기
4. 젊은 이들에 대한 성적 폭력을 감소할 수 있게 하는 형사 제도 혹은 학교 제도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참여 규칙들 (5 분)

셋째 모임 때 썸이면 참가자들이 은혜의 여성 공동체 언약에 나와 있는 행동 준칙들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만약 새로운 참가자들이 없다면 단지 그 그룹에 언약을 언급해 주고, 벽에 붙어 있으니까 보라고 하고 계속 모임을 진행한다. 만약 새로운 참가자들이 있으면 인도자나 계속 참석했던 이들 중의 한 사람이 그 언약을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스스로를 잘 돌볼 것과 질문들이나 할 말이 있으면 “생각이 머무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대화는 깊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아무 설명이 필요없이 잠시 교실을 떠날 수 있다고 상기시켜준다.

모임 요약 (20 분)

인도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모임 요약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주고, 중요 요점들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복사본을 만들어서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개인적으로 읽고나서 함께 중요 요점을 토론하도록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교육 제도가 흑인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복잡성을 검토하되 특히 미성년자들의 성적 인신매매와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흑인 소녀들 특히 상업적인 성 산업인 “매춘”에 관련된 아이들과 흑인 몸의 객체화에 관련된 아이들의 문제를 살필 것이다. 이번 모임은 언론에서 흑인 소녀들을 다루는 이미지의 영향을 다시 살필 것이다. 참가자들은 성적 학대, 성적 인신매매, 그리고 상업적인 성산업을 자세히 살펴볼텐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소녀들을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종종 수감 시설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다. 우리는 또한 흑인 여성성의 정상품화와 복장규정 위반과 흑인 여성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언론에 미친 이미지의 고정관념화를 다시 볼 것이다. 소개될 주요 용어들은 “성적 학대,”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그리고 “양성 성적체성과 비양성 성적체성” 등이다. 이러한 면들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교차성의 또 다른 요인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번 모임에서는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토론도 계속될 것이고, 이번 모임을 위한 중요한 배경을 알려줄 수 있어서 읽어오라고 했던 “제 4 장: 갇힌 곳에서의 배움”에서 자세하게 다룬 학교에서 수감시설로 가는 길들에 대한 토론도 계속할 것이다. 특히 많은 흑인 소녀들이 성적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런 학교에서 수감시설로 가는 길로 밀려났다. 제 3 장: 인종, 나이, 성, 가난, 성적 정체성의 교차성; 교사들의 기대; 그리고 흑인 소녀들과 여성들에 대한 대중 문화에 나타난 이미지들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일관되고 공통된 주제들이 있다. 다른 장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리스(Morris)는 상당한 양의 시간을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인터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젊은 여성들 중의 많은 이들이 성적인 인신매매

그리고/혹은 “매춘”의 피해자들이다. “매춘”과 “매춘을 하다”는 단어가 이 부분에서 어린이에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인용구 안에 넣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모리스(Morris)는 제 3 장의 첫째 부분인 “끌려옴: 성적으로 착취된 어린이들”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는 법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고, 그들이 통상적으로 훨씬 나이 많은 남자한테 – 그리고 때로는 여자들과 십대들에게 그리고 (여성과 소녀들의 몸을 의복이나 술이나 씹는 껌같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팔고 사용하는) 사회 전반에 의해서성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성의 매매에 참여할 수 없다” (102 쪽). 이 인도자 지침서에서 각 소녀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 소녀들이 실제 사람들이며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2015년에, 특히 텍사스에서 경찰에 잡혔다가 죽은 샌드라 블란드(Sandra Bland)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해쉬택 새이 허 네임> 운동(the #sayhername movement)이 흑인 여성에 대한 경찰 폭력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시작했다.

블란드(Bland)를 추모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내에서 흑인 여성들에 대한 폭력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미국 정책 포럼, 콜롬비아 법대 사회 정책 및 교차성 연구 센터, 그리고 소로스 대법관 선임연구원(Soros Justice Fellow)이자 유색인 성소수자와 여성감시활동에 대한 전문가인 안드레아 리치(Andrea Ritchie)가 합동으로 2015년 5월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말하자: 흑인 여성에 대한 경찰의 잔혹행위에 저항하기”라는 보고서를 새로 발표하였다... <새이 허 네임>(Say Her Name)은 언론과 운동권 사람들과,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과 다른 관련자들이 흑인 여성들이 겪은 정보수집과 경찰행위에 대한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 논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비록 흑인 여성들이 통상 경찰한테 죽임당하고 강간당하고 맞아도 그들의 경험들은 거의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대중의 이해에 있어서 전면에 나선적이 없다”고 콜롬비아 법대 사회 정책 및 교차성 연구 센터장이자 그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김벌리 Kimberle] 크렌쇼(Crenshaw)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들의 경험들이 포함되는 것이 경찰행위와 경찰의 가혹행위를 둘러싼 사회 운동과, 언론의 이야기들과, 정책을 요구하는 일에 중요할 뿐 아니라, 흑인 공동체들과 다른 유색인종 공동체들을 위해 극단적인 정부의 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¹

우리가 *밀어내기*에서 이야기된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인 소녀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이 단지 통계 숫자에 보태진 몸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 혹은 “그 사람들”이 아니다. 흑인 소녀와 여성의 이름이 이 모임 중의 토론에서 불려질 때, 그것은 그녀의 인간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김벌리 크렌쇼(Kimberle Crenshaw)는 “교차성의 긴박성”(18분 50초)이라는 <테드토크>(TED Talk)를 하였다. 그것은 더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자료이다. 찾아볼 사람은 [youtube.com/watch?v=akOe5-UsQ2o](https://www.youtube.com/watch?v=akOe5-UsQ2o)를 보라.

제 3 장의 제목인 “교실 안의 이세벨”은 이세벨(“Jezebel”)에 대한 고정 관념을 불러 일으킨다: 관능적이고, 교묘하게 뒤에서 조종하고, 유혹적인 옷을 입고 빨강색의 자극적인 립스틱을 바른 여자라는 이미지다. 모리스(Morris)의 제목은 독자들에게 흑인 소녀들이 종종 교육 장소와 사법 행정 장소에서 고정 관념으로 대해지는 방식에 주목하게 한다. 모리스(Morris)는 이렇게 쓴다. “이세벨의 반복은 우리들이 흑인 여성성에 대해 현대에 나누는 이야기의 일부로 남아 있다. 우리는 그녀를 힙합 비디오에나 나오는 자극적으로 성적인 성질 더러운 여자의 모습으로 볼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복지와 건강 그리고 범죄화와 수감에 대한 공공 정책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담론에서도 보게 된다” (116 쪽).

이 부분은 참가자들에게 특히 불편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읽는 이야기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의 경험을 건드리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다. 강간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한 참가자들 중의 일부는 개인적으로 강간을 당했거나 그 기억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

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 적이 없다면 그녀는 다른 누군가 피해자였던 사람을 알 수도 있다. 방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대부분은 이야기되지 않은 것들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반 성범죄 조직인 <강간과 학대와 근친 상간에 관한 국내 연결 조직>(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 RAINN)에 의하면, 미국 여성 여섯 명 중의 한 명이 자기 일생에 강간 미수 혹은 강간의 피해자였다고 한다.² “평균적으로 매년 미국에서는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321,500명의 희생자들 (12세 이상)이 생긴다.”³ 그 말의 뜻은 이것이 어떤 참가자에게는 아주 어려운 대화이며 그래서 이 모임은 인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모임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심지어 이 인도자 지침서를 쓰는 저자에게도 이 모임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성폭력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성폭행을 극단적인 범죄로 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인도자는 밀어내기에 나오는 통계를 언급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40%의 성적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흑인이다” (102 쪽). 그러나 인도자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 3 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많이 의존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마음을 바꾸는데는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1970대 초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론론자들은 미국이 “강간 문화”를 가진 것으로 묘사했다. 여성옹호가들과 다른 운동권 사람들은 만연된 강간과 그 피해가 주는 영향을 일반인들의 눈에 뜨이게 하였고 강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강간에 관련된 입법과 구조와 교육에 변화를 가져왔다.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강간이 미국 문화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문화에서) 많은 이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⁴ 강간과 성폭력에 반대하는 투쟁은 언론에 비추었다가 사라졌다가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2018년의 해쉬택 <미투>(#MeToo) 운동은 성폭력의 문화에 대한 대화를 미국 문화의 전면에 내세웠다. <미투> 운동의 기원은 그러나 그 훨씬 전에서 비롯되었다.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미투>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6으로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특히 흑인 여성들과 소녀들과 다른 빈곤층 공동체에 속한 유색인종 젊은 여성들을 돕고 치유의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⁵ 이 운동은 유명한 백인 여성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미투> 피해자 이야기를 넘쳐나게 하면서부터 결국에는 잡지들과 신문들의 일면 기사들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미투>의 신문 기사들을 그냥 따라가다가, 버크(Burke)가 흑인 소녀들과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시작했던 이야기는 상실되었다.⁶ 그러나 유색 여성들의 이야기들은—현재나 역사적으로나—사실 미국 내의 강간과 성폭력 문화의 발전과 지속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놀라 브랜틀리(Nola Brantley)는 성적으로 착취당한 청소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미세이>(Motivating, Inspiring, Supporting, and Serving Sexually Exploited Youth, MISSEY)의 소장인데, 흑인 소녀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결정들의 ‘연쇄 반응’의 충격적인 고통 속에 있다”고 말했다(119 쪽). 불행하게도, 이러한 연쇄반응은 세대를 거쳐서 일어난다. 이러한 연쇄적인 피해의 기원은 대서양을 건너서 이루어진 노예 무역에 있다. 이 연쇄 반응은 여러 방향에서 일어났는데, 경제적인 억압과, 육체적/성적 학대와, 흑인 여성과 소녀들의 비인간화를 초래한 것들이 다른 부정적인 영향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들이다. 현재의 흑인 소녀들과 여성들의 곤궁을 역사적인 억압과 학대와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에서 전해진 이야기들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트레이시 씨 웨스트(Traci C. West)는 자기 책 *영혼의 상처: 흑인 여성, 폭력, 그리고 저항의 윤리*에서 이렇게 쓴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들에 대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폭력의 역사적인 전통이 지속되는 것을 문서로 증명한다. 과거에서 들려온 목소리들은 현재의 여성들이 회복의 여정을 가는데 동반자로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인 전통이 현재의 여성들의 경험을 토론하는 맥락을 제시한다. 그것은 가까운 이들이 자행하는 폭력의 희생자가 거의 없는 미래를 창조하기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회적 변화를 시작하려고 시도하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견고한 구조적인 본질을 가진 것임을 기억하게 한다.⁷

노예가 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기 전에, 웨스트(West)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한다. “가까운 이에 의한 미국내 흑인 여성들에게 가해진 초기의 이야기를 둘러싼 노예제도의 이례적인 상황들은 특별한 주목이 필요하다.”⁸ 노예 상태에서의 성적 폭력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웨스트(West)는 이렇게 적고 있다. “노예 여성들은 자기들이 주인 집에서 일하던 들판에서 일하던 성적인 폭력의 위협과 더불어 살았다. 노예 여성들은 백인 주인들에게 강간당했고, 백인 감독들에게 강간당했고, 흑인 운전수들에게 강간당했다. 그리고 우량 품종 보존을 강제한다는 구실로 주인들이 골라준 흑인 노예 남자와의 강제적인 품종 보존 성관계에도 복종해야 했다.”⁹

흑인 소녀들과 여성들의 비인간적인 취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억압자들은 신화들을 만들어 냈고, 흑인 여자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학대를 즐긴다고 꾸며냈다. *밀어내기*에서 칼라(Carla)라는 젊은 흑인 여성은 이런 고정 관념이 현대에 등장하면서 옷입는 스타일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노예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노예 여성들은 엄격한 복장 규정의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규정들은 권력과 지배의 수단으로 작용했고 사람들이 흑인 여성들과 소녀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복장 규정과 그것이 흑인 소녀들에게 적용되었던 편견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억압의 가치관이 현대에 표현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중요 용어들

인도자들은 이러한 중요 용어들과 그들의 정의가 담긴 유인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부록 A 참조).

- i. 성적 학대
- ii. 이성애자
- iii. 트랜스젠더
- iv. 성 구별 이분법
- v. 이분법적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성 정체성

환영 (10 분)

인도자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말로 환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소개하도록 하고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활동을 인도하고 잠시 오늘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한다. 비록 이번이 셋째 모임이지만, 환영과 소개는 여전히 적절하다. 그러나 소개는 서로를 알아가는 활동과 함께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표를 부착할 것을 상기시킨다. 서로를 아는 활동/소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전에 토론되었던 아니면 앞으로 토론하는데 나올 여자들과 소녀들의 이름들을 작은 종이에 써서 바구니에 그것들을 담는다. 하나씩 각 참가자가 종이를 하나씩 집어서 그 이름을 큰 소리로 읽는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이야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존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경험에 근거를 두기를 원한다.

소개하는 이야기 중에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혹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 중에 계속 생각나서 잠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지 물어 보라. 이 시간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가질 수도 있는 질문들을 대답해 주고 참가자들이 다음의 용어들을 다 이해하도록 확실히 한다: 성적 학대, 이성애자, 트랜스젠더, 성 구별 이분법,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 성 정체성 등. 참가자들은 중요 용어들의 정의를 알기 위해 유인물을 참조할 수 있다.

개회 찬송, 기도, 또는 교독문 (10 분)

개회 교독문, 부록 D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애가를 들으소서"를 나누어 준다. 인도자 부분을 읽을 자원자를 찾아서 부탁한다.

성경

개회 교독문에 이어서 그룹에서는 성경을 읽을 것이다: "나를 굽어살피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혀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비틀거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 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3-6).

깊이 파고들기: 제니퍼의 이야기 (25 분)

참가자들에게 밀어내기의 103-108쪽에 있는 제니퍼의 이야기를 읽을 기회를 준다. 그리고 각자 다음 질문에 대해서 묵상일지를 써보라고 초청한다.

- 그 이야기에서 무엇을 주목하여 보았는가?
- 그 이야기 안에 다른 누가 또 있었는가?
- 이 이야기에는 어떤 제도/기관들이 개입되었는가?

그리고는 참가자들을 네 개 내지 다섯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서로 비교하면서 15분 정도 토론하고 다음 질문들을 함께 탐구한다.

-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변들이 가장 자주 나왔는가?
- 한 번만 나온 답변이 있는가?
- 이 공부에서 우리는 모리스가 나눈 이야기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우리의 마치는 묵상에서는 우리는 그 소녀들과 그들의 느낌과 욕구들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자주 제니퍼의 느낌과 욕구가 그룹이 내놓은 대답 속에 나열되었는가?

전체 그룹을 다시 모아서 이 활동에 관한 주요한 관찰들을 토론한다.

깊이 파고들기: 파리스(Paris)의 이야기 (25 분)

참가자들에게 밀어내기 116-117쪽에 있는 파리스의 이야기를 다시 읽을 기회를 준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소그룹으로 돌아와서 10분 동안 다음 질문들을 탐구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 파리스의 이야기는 복잡하다. 그녀는 다양한 복합성의 억압을 경험한다 (여자로서, 흑인으로서, 트랜스젠더로서, 재정적으로 고전하는 사람으로서 등등). 그러나 그녀는 교육을 마쳤고 지금은 지역사회 운동가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라. 어떤 요인을 파리스는 자신의 성공을 뒷받침한 것으로 묘사하는가?
- 파리스는 말한다. "많은 소녀들이 성산업에서 일하지만 자기들이 성산업에 종사한다는 것도 모른다" (117 쪽). 무엇이 소녀들을 성산업에 뛰어들도록 압박을 가하는 제도적인 문제들인가?

떠날 때의 묵상 (20 분)

이 모임을 마치기 전에, 인도자는 “생각이 머무는 장소”에 있는 질문들로 돌아가서, 적절한 것이면, 중요한 요점들을 다루고, 그 모임의 핵심을 정리해 준다 (자원 봉사자에게 큰 종이 위에 그것들을 적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어떤 할 말이 있는 지를 물어본다. 참가자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내 삶에 적용할 질문들을 묵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벽에 붙어 있는 이 모임을 위한 강조점들의 종이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을 보고해야 한다. 모임을 마치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초청한다: 나에게 들으라고 초청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초청하시는가?

내 삶에 적용할 질문들

- 모리스(Morris)가 성적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인 소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많은 이들이 성산업에 종사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된 요인이 그들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까?
- 미국에 강간 문화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이 행해져야 할까?

참가자들이 떠나기 전에 인도자는 그들에게 네 번째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밀어내기 5장을 읽어 올 것을 상기시킨다.

각 장 요약

“제 3 장: 교실 안의 이세벨”은 흑인 소녀들의 성적 학대, 성적 희롱, 그리고 성적 인신매매와 학교 제도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야기들은 성적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서론에서는 다이아몬드(Diamond)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녀는 무단 결석으로 잡혀서 수감 시설에 갇혀 있는 동안 인터뷰를 했다. 이 장에서는 모리스(Morris)는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파리스(Paris)라는 뉴 올리안즈에 사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소개한다. 그녀는 성산업에 종사하지만 성공적으로 학교를 마쳤다. 열 여섯살 된 제니퍼(Jennifer)는 학교를 3년간 쉬었고 수양딸로 키워진 경험을 나눈다. 테리(Terri)는 십대에 엄마가 되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바비(Bobbie)는 가난과, 그녀의 경우에는 기아와, 성 산업 사이의 연결축을 보여주었다. 바비(Bobbie)의 말이다. “만약 집에 음식이 없어서 일주일을 먹지 못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길에서 끌어내서, ‘네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18쪽).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먹여주면 그들은 너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모리스는 이어서 말한다. “그들은 네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118쪽)는 말은, 간단 명료하게 가난과 성적 학대의 복잡성과 교차성을 요약해 준다. 모리스(Morris)는 더 나아가 라일라(Leila)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는 멘토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셸(Michelle)과 날라(Nala)는 라일라(Leila)가 참여한 대화에 참여하였는데 소셜 미디어, 특히 페이스북과 리얼리티 텔레비전의 해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모리스와의 대화에 참여한 다른 이들로 지니(Jenee), 패트리스(Patrice), 캐서린(Catherine)이 있는데 그들은 엄격한 학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장 규정과 이 복장 규정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것은 종종 적합하지도, 합당하지도, 공평하지도 않게 보인다. 복장 규정의 문제점은 시카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데하(Deja)는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복장 규정과 학교 당국의 일관되지 못한 적용에 대한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고 어느 더운 나 학교에 짧은 옷을 입고 갔던 자기 경험을 나누었다 (126 쪽). 칼라(Carla), 디(Dee), 샴리카(Shamika), 카리스마(Charisma), 그리고 샤이(Shai)는 복장 규정의 적용에 담긴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든 남자들과 학교 직원들이 흑인 소녀들에 대해서 가

진 이미지들과 흑인 소녀들과 여성들이 언론에 비친 모습과, 몸에 대한 이미지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 장은 다시 한 파리스(Paris)와의 대화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 그녀는 트랜스젠더 여성인데 학교 당국과 대면하게 될 때 가족의 도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나누어 주었다.

첫 문장은 14살된 다이아몬드(Diamond)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의 성적 착취가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가에 초점을 맞추므로서 이 장의 기초를 놓고 있다. 다이아몬드(Diamond)가 자기의 남자 친구라고 언급하는 그 남자는 “남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 그가 얼마나 꼼짝 못하게 통제하는 지는 모리스가 강조해 놓은(97 쪽), 다이아몬드(Diamond)가 사용하는 네 단어, “그가 네게 하게 해주면”(if he lets you)으로 요약된다. 이 부분은 성적인 학대를 감옥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입구이자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형사 법 제도가 종종 미성년자들을 처벌하면서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성인 남녀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의 된다. “끌어내기”라는 말이 “밀어내기”와 “학업중단”이라는 말에 더해 소개된다. “끌어내기”는 흑인 소녀들의 교육을 중단하고/혹은 끝내는 또 다른 방식이다.

끌어내기: 성적으로 착취당한 어린이들

처음 부분인, “끌어내기: 성적으로 착취당한 어린이들”에서 모리스(Morris)는 어린이들이 성관계에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착취당한 것 때문에 처벌되는 망가진 법제도를 살펴본다. 제니퍼(Jennifer)의 이야기는 자신의 성적 학대 경험과 학교 제도의 실패, 교육을 받았다는 자신의 결의, 그리고 십대 엄마가 된 축복과 부담을 묘사하고 있다. 모리스(Morris)는 또한 미국에서의 성적인 인신 매매에 있어서 인종적으로 흑인 소녀들을 상당한 정도로 더 취약한 상태에 두는 불균형이 있는 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쓴다.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의 40%의 성적 인신 매매 피해자는 흑인이다. 뉴올리안즈에서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그리고 시카고에서 흑인 소녀들이 성적으로 인신매매 당하는 숫자는 훨씬 높다” (102 쪽).

학교로 돌아감

모리스(Morris)는 흑인 소녀들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시각을 제시한 학교 교장인 홀리오(Julio)와 대화를 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백인 여자들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로 자신의 교사들과 계속해서 부딪친 한 소녀에게 성공적이었던 한 가지 방법을 나누기도 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선생은 나이트 백인 여자였다. 그는 그녀의 필요에 근거하여 학습 방법을 특별히 만든 개인 교육 플랜(Individual Education Plan, IEP)을 사용하는데 성공했다. 개인교육 플랜(IEP)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다. 그것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생을 위한 학습 방식을 특화해서 공급하는 통합된 팀 접근법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홀리오(Julio)가 문제된 소녀를 위해 실천할 수 있었던 방식이다. 홀리오(Julio)의 성공 이야기는 이렇게 망가진 법적 제도와 형사제도 안에서 조명을 받았다. 다이아몬드(Diamond)와 제니퍼(Jennifer)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중요한 점은 학교 제도는 대화와 후원 그룹과 관계 형성과 치유를 위한 개입의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때에 돌아가기

다음 부분은 독자들을 미국 국경을 지나서 “소녀들을 성 산업으로 안내하는 일”이 펼쳐지는 전세계로 나가게 한다. 모든 배경의 소녀들이 자신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매춘의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성차별적인 개념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것이 흑인 소녀들일 경우에는 그런 식의 성격 묘사가 더 흔히 받아들여진다” (114 쪽). 그 다음 부분인, “실제로 있는 일들”에서 모리스(Morris)는 독자들을 읽기도 가슴 아픈 성 산업의 실제 실행되는 과정으로 데리고 간다. 파리스(Paris)라는 트랜스

젠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리스(Morris)는 육체적 및 심리적인 학대와 강간과 약물 중독을 사용해서 소녀들을 길들이고 성산업에 적응시키는 포주의 역할을 살펴본다. 파리스(Paris)는 전직 성산업 종사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을 통제하는 포주를 가지지 않은 성산업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제공해 준다.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과 법적 자원의 부재도 역시 논의 된다.

학교에 다니기에는 너무 성적이다

모리스(Morris)는 시카고 청소년 그룹과 성적인 피해자가 된 것, 자존감이 없는 것, 언론의 영향, 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학교의 복장 규정 등에 대해 대화를 하였다. 그들의 복장 규정, 흑인들의 신체 모양들, 그리고 인종적 편견 등에 대한 대화는 다른 복잡한 내용들을 표면에 떠오르게 했다.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복장 규정과 교복이 긍정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 오게하는 한가지 틀을 제공해 주고 학교 교칙과 공동체의 이미지와, 학생의 안전과, 자긍심에 관련된 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연결이 된 것으로 보였다.” (123 쪽). 그러나, 교복 정책과 복장 규정들은 흑인 소녀들에게 편견없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들은 종종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고, 흑인 소녀들을 학교에서 몰아내고, 흑인 소녀들을 자신들의 몸의 타입에 근거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교복이나 복장 규정의 강요는 다른 싸움, 즉 소녀들이 학교를 떠나도록 만드는 싸움으로 이끌 수 있다. 복장 규정은, 그 좋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억압의 도구로 변하였다” (124 쪽). 모리스는 또한 이렇게 쓴다. “미국에서의 복장 규정은 자의적이며,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남녀 차별적이고 여자들을 막 사는 여자로 폄하하는 풍토를 강화하는 것이다. 복장 규정은 동시에 아프리카 후손인 사람들의 자연적인 머리 모양의 질에 대해서 내면화된 억압을 강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92 쪽).

옮겨가기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인 “옮겨가기”는 간략한데, 역시 파리스(Paris)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파리스(Paris)를 제 1 장에서 처음 만났다. 여기서 파리스(Paris)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 남성에서 여성으로 옮겨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성공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운 가족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만난 많은 여자들은 이런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후주

1. 아프리카인 어메리칸 정책 포럼 (AAPF), “〈해쉬택 새이 허 네임〉(#SayHerName): 흑인 여성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에 저항하기,” 2015년 7월 15일 게재, aapf.org/sayhernamereport.
2. 강간, 학대, 근친상간 전국 네트워크 (RAINN), “성 폭력의 피해자들: 통계,” rainn.org/statistics/victims-sexual-violence.
3. 강간, 학대, 근친상간 전국 네트워크, “성 폭력의 피해자들: 통계.”
4. 헤더 맥킨토쉬(Heather McIntosh), “강간 문화,” 살렘 프레스 백과사전 (까말리요, 캘리포니아: 살렘 미디어 그룹, 2019).
5. “감리교 여성교회: 은혜의 자매관계, 선교에 나선 여성들의 역사,” 2014년 3월 20일 게재 혹은 개정, unitedmethodistwomen.org/news/methodist-women-sisterhood-of-grace.
6. 몰간 그린(Morgan Green), “〈미투〉(#Me Too) 운동의 타라나 버크(Tarana Burke)는 지역 운동가들에게 ‘우리가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운동은 반드시 유색인종의 여성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카고 트리뷴, 2018년 10월 11일자 참조; 카산드라 산티아고(Cassandra Santiago)와 더그 크리스(Doug Criss), “한 명의 운동권 사람, 한 명의 작은 소녀,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미투〉 운동의 기원,” CNN.com, 2017년 10월 17일 개정.
7. 트레이시 씨 웨스트(Traci C. West), *영혼의 상처들: 흑인 여성, 폭력, 그리고 저항의 윤리* (뉴욕: 뉴욕 대학 출판부, 1999), 13 쪽.
8. 웨스트(West), *영혼의 상처들*, 14 쪽.
9. 웨스트(West), *영혼의 상처들*, 14 쪽.

넷째 모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로 세워가기

학습 목표들

1. 이 책 *밀어내기*에서 여섯 가지 중요 주제들을 살펴보는 것
2. 흑인 소녀들을 범죄화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의 가능한 해결책을 논하는 것
3. 이 문제들과 관심들에 빛을 비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사랑의 방법들을 살펴 보는 것
4. 이 문제를 계속 다루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다음 단계를 의논하는 것

참여 규칙들 (5 분)

넷째 모임쯤 되면 참가자들은 은혜의 여성 공동체 언약에 익숙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참가자들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모임에서 벽에 붙어 있는 그 언약을 언급하고 모임을 계속하면 된다. 만약 새로운 참여자가 있다면 인도자나 다른 계속 참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그 언약을 큰 소리로 읽어 줄 수 있다. 인도자들의 역할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몇 대화들이 깊은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무 설명없이 잠시 교실을 떠날 수 있다고 상기시켜 줄 수 있다.

참가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인도자는 큰 종이에 “생각이 머무는 자리”라고 써서 벽에 붙여 두어야 한다. 인도자는 시간을 가지고 참가자들에게 현재 나누고 있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만약 현재 되어지고 있는 토론에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들은 생각이 머무는 자리에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간에 토론할 서이다. 이 마지막 모임에서는 마지막에 생각이 머무는 자리에 있는 많은 주제들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모임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이 머무는 자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룰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모임의 요약 (10 분)

인도자들은 모임의 요약을 큰 소리로 읽고 중요 요점들의 개관을 알려 주거나 복사해서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중요 요점을 함께 토론하는 식으로 참가자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

넷째 모임은 결론적인 모임이다. 물론 이 모임과 그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흑인 소녀들의 행동을 범죄화하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제도를 목상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공부를 끝나서 갈 때 자기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다거나 이 교재가 제시한 문제들과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나서면 안된다. 모든 이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흑백을 가리지 않는 접근법은 흑인 소녀들의 독특한 필요를 다루는데 효과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모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접근법이 가지는] 다소 순진한 논리는 흑인들을 향한 지속적인 경찰의 잘못에 대항하고자 단합된 수백만의 사람들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운동 직후에, 예측했던 대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진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목숨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외침을 한 것과 비슷한 것이다. 물론 문제는 모든 목숨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 소중하다. 그러나 “흑인”을 “모든 사람”으로 대치할 때 경찰 폭력과 과도한 무력 사용과, 폭행과 다른 부정의 등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편견에 반대해서 일어난 구체적인 저항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175 쪽).

그러나 목상 이외에도 축하할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모임이 함께 그 아주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씨름해 왔다. 지난 세 번의 모임을 거치면서, 그들은 자기들과는 아주 다른 세상에 사는 아주 다른 소녀들과 여성들

의 이야기들을 접해왔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밀어내기에서 이야기된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독특한 문제들과 모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문제들 가령 성적 학대와 폭행 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해 왔다. 이 공부를 통해서 그들은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인종, 나이, 성적 정체성, 그리고 가난에 의해서 더 증폭된 밀어내기에서 묘사된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있음을 배웠다. 때로는 이야기들에 나오는 어떤 내용은 감정적인 반응이나 심지어는 깊이 박힌 기억을 자극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해결책을 찾고 치유와 구원과 해방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공부를 마친 이들을 인정해 주는 일은 마땅한 것이다.

중요 용어들

인도자들은 이 중요 용어들과 그 정의가 담긴 유인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부록 A 참조).

- i. 흑인의 목숨이 소중하다
- ii. 문화적으로 적응력있는 교과 과정
- iii. 치유가 전달되는 교실들

환영 (5 분)

인도자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말로 환영을 하고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루어질 주제들에 대해서 개관을 한다. 동시에 네 번에 걸쳐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한다. 비록 이것이 마지막 모임이기는 하지만, 인사를 나누고 소개를 하는 것은 여전히 적절하다. 그러나 소개는 서로 사귀는 시간과 통합되어야 한다. 모든 이들에게 이름표를 부착할 것을 상기시킨다. 사귀고 소개를 위해서는 인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고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자기에게 울림이 있었던 중요한 점을 나누도록 한다. 그리고 밀어내기의 이야기게 언급된 한 소녀 혹은 소녀들을 위한 한 가지 소망을 나누도록 한다.

개회 찬송, 기도, 혹은 교독문 (5 분)

이 모임은 부록 B에 나오는 기도를 읽으면서 시작한다. 그것은 첫째 모임 때도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이 책에서 다루어진 흑인 소녀들과 학교에서 밀어냄을 당한 우리 나라 전역에 있는 흑인 소녀들을 위한 짧은 기도를 쓰라고 초청한다. 이것은 모임 내내 벽에 붙여질 것이다.

성경

모임에서는 개회 기도에 이어서 성경을 읽는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마가복음 10:13-16).

공평과 평등 (30 분)

칠판이나 큰 종이에 인도자는 사람들이 “공평”과 “평등”이라는 말의 정의 혹은 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나열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든다.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각 개념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나누도록 한다. 그리고는 다음의 내용을 프로젝트로 비치든지 아니면 벽에 붙이든지 아니면 유인물로 나누어 준다: story-basedstrategy.org/the4thbox. 모임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야기한 내용과 그 도표에 나온 내용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토론하게 한다. 소그룹에서는 이 내용을 전체 모임에 보고할 보고자를 뽑아야 한다. 그 반응들이 “공평과 평등”이라는 제목을 단 큰 종이에 기록되어서 전체 그룹이 읽을 수 있게 한다.

아직 소그룹으로 있을 때 각 그룹이 모리스가 이 장에서 나열한 여섯 가지 주제들 중의 하나를 다루도록 정해준다:

전국의 소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집한 통찰과 유형과 깨달음으로부터 여섯 가지 주제들이 흑인 소녀들의 학습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 소녀들을 학교에서 폭력과 피해자가 되는 일에서부터 보호하는 것, (2)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화를 선도하는 것, (3)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4) 학교에 기반을 둔 돌봄 서비스, (5) 훈육과 감독에 대한 강조를 줄이고 학생의 배움에 더 초점을 두는 일을 병행하는 것, 그리고 (6) 전통적인 학군이나 지역사회 학교들과 회복과정에서 다닌 학교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학습을 서로 교환하여 인정해 주는 것 (176 쪽).

모임을 소그룹이나 짝으로 나눈다. 각 소그룹에는 아래 이야기 들 중의 하나를 배정한다. 그들이 할 일은 어떻게 위에서 언급된 내용 중의 하나의 주제를 자기들이 읽은 이야기와 연관시킬까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야기들

- 다니샤(Danisha) (16 - 17 쪽): “그리고 나는 매춘부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 포티아(Portia) (27 - 29 쪽):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위해 일어섰다.”
- 파리스(Paris) (29 쪽): “파리스는 왜 자신의 성 정체성과 표현이 문제가 되는 지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 데스티니(Destiny) (39 - 42 쪽): “무시되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된다.”
- 재지(Jazzy) (44 - 46 쪽):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기회들이 없다.”
- 샬리스(Shanice) (37 - 38 쪽): “...그들이 거기 조용히 앉아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않느냐?”
- 샤논(Shannon) (50 - 51 쪽): “나는 아무 것도 쓰지 않을 것이다!”
- 페이스(Faith) (52 - 55 쪽): “사람들이 여긴 남자들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지?”
- 제니퍼(Jennifer) (157 - 59 쪽): “소년원은 정신적 충격을 당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아.”
- 헤븐(Heaven) (170 - 74 쪽): “나는 내 고등학교 시절 전체를 후회한다. 솔직히 나는 고등학교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다른 질문들을 묻기 (25 분)

“제 5장: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가 되기”에서 모리스는 독자들에게 다른 질문들을 묻고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짜보라고 초청한다.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흑인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의 건강한 계발을 지원하는 노력과 관련해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육과 처벌 법규들과 정책들과 기관들과 제도들을 잘 검토해서—인종과 성에 대한 의식을 철저하게 한 틀을 이용해서—우리의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치유하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정책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야 한다:

1. 흑인 소녀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제들을 하고 있는가?
2. 어떻게 흑인 소녀들이 학교와 다른 훈육정책들에 의해서 독특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3. 어떻게 기관들과 제도들과 정책들이 흑인 소녀들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는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들을 만들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정책 결정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차원—학교, 공동체, 도시들과 그 이상—에서 흑인 소녀들이 무시되지 않는데 아주 중요하다(182 - 83 쪽).

이 틀은 흑인 소녀들의 복지를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이 활동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위에 나열한 모리스의 중심 질문들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학교에서의 복장 규정과 관련을 지어본다.

훈육과 관련된 법규들은 각 주마다 다르고 주 안에서도 학군마다 다르다. 법은 “입법되고, 규정되고, 확립된 것이다. 규칙 또는 방식은 현상이나 행동들이 공존하고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¹ 규정은 “규정하는 행동; 관리 혹은 행정을 위해 정해진 규칙이나 질서이다.”² 단순하게 말하면 법은 “내용”이고 규정은 “어떻게 그 내용을 지킬 것인가”하는 것이다. 부록 E는 미국 교육부내 학생 건강 및 안전부가 미국 연구기관(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AIR)과 협약을 맺고 준비한 *학교 교칙법규 및 규정 요약 (Compendium of School Discipline Laws and Regulations)*인 주 법들 그리고/또는 규정들 가운데서 교내 처벌 혹은 복장 규정에 관련된 발췌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어떤 법규들과 규정들은 짧고 어떤 것들은 더 길다. 어떤 경우에는 법 그리고/혹은 규정의 길이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기도 한다.

모임 시작 전에 인도자는 부록 E에 있는 이런 법규들의 예를 담고 있는 유인물의 복사본을 만들어야 한다. 그룹의 크기에 따라, 인도자는 참가자들을 다섯 개의 소그룹이나 짝을 만들고, 각 그룹이나 조에 아이 오와, 펜실바니아, 미시간, 미시시피, 혹은 북 캐롤라이나 중의 한 주에서 발췌한 복장 규정과 거기에 따른 법규 복사물을 나누어준다. 그리고는 인도자는 소그룹이나 각 조에서 모리스의 세 질문들을 이 법들 그리고/혹은 규정들과 관련해서 토론하게 한다. 교내 학칙들은 세 질문에 비추어서 한 법안을 살펴보기에는 한 그룹이 선택해서 검토하기에는 더 길 것이다. 참가자들이 12분동안 토론하고 묵상한 다음 전체 모임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한다. 참가자들에게 다른 그룹이 발표하는 것을 듣고 잘 생각해 보라고 한다.

떠날 때의 묵상들 (25 분)

모임을 마치기 전에, 인도자는 “생각이 머무는 장소”에 돌아가서 만약에 적합한 것이 있다면 중요한 요점들을 다룬다. 그리고는 아래에 있는 내 삶에 적용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고 묵상할 시간이다. 이 질문들은 대화와 묵상을 하게 하기 위한 심도있는 질문들이다. 참가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이 질문들 중 하나를 지정하고 토론하게 한다. 20분이 지난 후에 전체 모임을 다시 모은다. 각 그룹의 보고자는 자기들의 토론의 요점들을 보고한다. 그리고는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이 이 공부를 통해 얻어갈 내용 한가지씩을 말해 보라고 한다.

내 삶에 적용한 질문들

- 176쪽에서, 모리스는 “공평을 성취하기 위해 기획된 학교를 꿈꾸는 일”이라는 단락을 시작한다. 처음 문장에서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흑인 여자 학생들이 고정관념에 멎들지 않고 우리 소녀들이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집단 우수 학교의 비전을 가지고 신나게 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것은 독자들에게 흑인 소녀들을 위한 공평과 평등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공평과 평등의 차이는 무엇인가? 흑인 여자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공평한 학교제도는 어떤 것인가?
- 어떻게 교육 제도를 바꾸어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 모리스(Morris)는 “힘을 온전히 재분배하고 인종적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책을 마친다(194 쪽). 당신은 모리스에게 동의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 사랑이 그러한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기능할 수 있는가?

이 공부를 마치는 시간은 거룩하고 조용하다. 테이블은 검은 테이블천으로 덮히고 거기에는 표면에 유리 돌들을 펼쳐서 장식한 뒤에 중앙에는 불이 붙은 초를 하나둔다. 각 참가자는 불을 붙일 수 있는 작은 초를 하나씩 받는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참가자 한 사람이 있다면 *밀어내기*에서 다른 자기 마음에 울림을 준 한 가지 문제 혹은 한 소녀의 이름을 말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돌 하나를 가지고 가게 한다. 인도자는 마지막 축복기도를 한다. 참가자들은 이 공부와 *밀어내기*에서 나눈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녀들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변화에 필요한 행동 지향적인 사랑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방을 떠난다.

각 장의 요약

*밀어내기*의 이 마지막 장인 “관계를 치유하고 하나되기”에서는 모리스는 이 책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들을 재정리하고 해결 방안들을 논의한다. 이 장의 중요한 주제는 범죄화로 가는 길인 교육제도를 변화시켜 문화를 잘 아는 유능한 교직원들을 배치하고 배제적인 훈육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흑인 소녀들을 폭력과 피해자가 되는 일에서 보호함으로써 흑인 소녀들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장소로 바꾸는 것이다. 제 5장의 서론은 헤븐(Heaven)이라고 하는 17살된 소년원에 갇힌 아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담고 있다. 헤븐(Heaven)은 자기가 가출을 한 이야기, 남자친구 이야기, 교육과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헤븐의 선생은 언제나 그녀에게 그녀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와 역사였다”(171 쪽).

모리스는 이 이야기를 교육제도와 그 제도가 가진 편견과 흑인 소녀들에게는 내재적인 단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한다. 헤븐의 이야기는 흑인 소녀들이 직면하는 많은 그리고 겹쳐진 문제들과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의 교차성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들의 전부가 아니면 대부분은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가난과 흑인 소녀들과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이 겹쳐진 교차성으로 모아진다. 이것은 교육제도와 형사법 제도 안에서 흑인 소녀들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게 만든다. 헤븐의 교사들은 그녀의 학습 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수업을 빼먹고 결석을 하였다. 그리고 누구도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출을 했고 누구도 그녀가 가출소녀가 된 원인이 되는 환경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고 그 결과 남자친구와 함께 지냈다. 누구도 왜 14살 된 소녀가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묻지 않았다. 모리스는 헤븐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요약하였다: “누군가가 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물어 본 적이 있느냐?” (173 쪽). 이 간단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은 교육 제도와 형사법 제도에서 흑인 소녀의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 준다. 모리스는 동시에 “내재된 성차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사용한다. 내재된 성차별은 한 개인이 같은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억압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억압적인 성차별의 이념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때 보인다.

이 장의 서론에서 모리스는 또한 여섯 개의 주제를 요약하면서 그것들이 “흑인 소녀들의 질 좋은 학습 환경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떠올랐다”고 말한다 (176 쪽). (이것들은 공평과 평등 활동에서 위에 열거되었다.) 그녀는 서론을 결론지으면서 이렇게 적는다:

점점 더 학교들은 전국적으로 흑인 여학생 혹은 다른 유색인종 여학생들과 학교들 사이의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차별 위주와 배제시키는 환경을 대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많은 주에서 이제는 어린이들과 유색인종에게 배제적인 학적을 불균형적으로 사용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가 정말로 아이들을 차별해서 학교에서 밀어내는 교육을 우선시하는 교육 제도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 (176 쪽).

그녀의 서론에 이어서 다음 세 단락이 나온다. “공평을 성취하도록 고안된 학교들을 꿈꾸기”; “차별에서 변혁으로”; 그리고 “새로운 미래.” “공평을 성취하도록 고안된 학교들을 꿈꾸기”는 일곱 소단락으로 나누어 모리스가 자기 책에서 여섯 떠오른 주제들로 요약한 문제들과 관심들을 다룰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독자들에게 “흑인 여자 학생들이 고정관념에 멍들지 않고 우리 소녀들이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집단 우수 학교의 비전을 가지고 신나게 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라” (176-77 쪽)고 주문한다. 그녀는 또한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대안 반응을 실천하고 젊은 이들에게 자기가 누구이고 그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르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이다” (178 쪽)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차별에서 변혁으로”라는 단락에서는 모리스는 왜 흑인 소녀들이 살아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가 하는 질문을 다시 다룬다. 그녀는 그 책에서 발전시킨 문제들과 관심들을 다시 이야기한 후 교육 제도 안에서 변혁으로 이끌 수 있는 해결책의 요약을 제시한다. “새로운 미래”라는 단락에서는 흑인 소녀들이 교육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간결하게 *밀어내기*의 193쪽에 있는 도표 안에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에는 목록으로 나열되어 제시되어 있다.

문제 학생의 행동에 대한 치유 정보가 담긴 응답

- 학교에 근거한 회복의 기회들
- 비행 전과가 있는 소녀들을 위한 중간 단계 프로그램들
- 함께 만드는 교칙과 복장 규정들
- 교정에 상주하는 학습 지도자
- 학교들과 공공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동역관계

필요를 채워주는 편견없는 학습

- 예술의 통합
- 문화를 잘 이해하는 교과 과정
- 잠재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훈련
- 집단 작업/대화에 강조를 둬
- 개인적으로 응답하는/맞춤형 교육

치유 정보가 담긴 교신들과 학교들

- 공감 상담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그룹 작업과 학생 활동
- 휴식/쉼
- 사회 정의를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에 대한 긍정
- 건강한 관계에 대한 주도적 학습

대학과 직업으로 가는 길들

- 인턴십
- 학교에서 해 볼 수 있는 지도력 발휘 기회들
- 상담과 협의
- 다양한 전문적 및 삶의 경험을 가진 이들을 초청 연사로 모심

이 장은 모리스가 교육 제도와 그 이후에서 흑인 소녀들을 위한 밝은 미래로 인도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낙관적이다.

저자 후기는 행동에 대한 초청으로 요약되어 있다. 모리스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이 책을 덮으면서 어떻게 우리 학교들이 위기에 처한 흑인 소녀들 에게 응답하는 가를 탐구하는 일을 위한 대안들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을 한다. 동시에 나는 광범위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한다” (195 쪽).

후주

-
1. 블랙(Black)의 법률 사전, 제 2 판 (무료 온라인 사전), thelawdictionary.org/law.
 2. 블랙(Black)의 법률 사전, 제 2 판 (무료 온라인 사전), thelawdictionary.org/regulation.

추가 모임: 믿어내기개관: 광야로 내몰림

시간: 45 분

학습 목표들

1. 믿어내기 이 책의 개관 제공
2. 흑인 소녀들의 행동을 범죄화하는 제도적인 방법들을 의식하게 하는 것
3. 감옥 산업 제도와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과 학교에서 수감 시설로의 길들을 이해하는 것
4. 암묵적인 편견과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사회화의 과정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
5. 가난과 성별과 인종의 교차성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것

참여 규칙들

참여 규칙들이 모임 안에서의 대화화 행동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모임에 참가하는 이들은 공동 활동으로서 참여 규칙들을 만드는 일에 기여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임의 일체성을 형성해 준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단지 은혜의 자매 관계 언약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공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와의 언약 관계에 있을 것에 동의하기를 부탁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성경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떠올린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ברית(berith)*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자르다”는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창세기 6:18). 선지자 예레미야도 역시 새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언급하였다 (예레미야 31:31-33).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관계에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와 언약관계에 있을 수 있다. 언약은 단지 규칙을 따르겠다는 동의 이상이다. 그것은 관계를 맺어준다. 기독교 여성으로서 우리들은 이미 서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었다. 이 공부시간에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하며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모임에서는 자기들의 언약의 기초로 *은혜의 여성 공동체: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프로그램 북 2018-2019*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은혜의 여성 공동체 언약

- 경청한다—머리와 마음을 사용해서.
-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이야기한다.
- 몸의 언어를 의식한다.
- 비밀 유지를 존중한다.
- 개인적 공간을 존중한다.
- 자신의 의도와 자신이 끼친 영향에 책임을 진다.
- 환경 보존을 위한 삶을 실천한다.
- 다 마치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불편함과 기쁨을 가지고!

은혜의 여성 공동체 언약은 미리 큰 종이에 적어서 벽에 걸어둔다. 인도자는 참가자들과의 대화에 참여해서 그들에게 각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물어보고 그리고/또는 그것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보이는 지를 묘사하라고 부탁한다. 모임에서 그 모든 문장들을 토론한 후에, 인도자는 참가자들이 그 언약에 더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를 묻고 그렇다면 그 내용을 큰 종이에 포함시킨다. 인도자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제안된 보조 자료는 샬리 디크 감독(Bishop Sally Dyck)의 *거룩한 모임을 위한 여덟가지 원칙들(Eight Principles of Holy Conferencing)*이 있는데,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mnumc-email.brtaapp.com/files/efiles/documents/holy_conferencing_study_guide_2012.pdf.²

떨어내기란 어려운 대화를 촉발한다.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대화는 깊은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그러므로 참가자들은 필요하면 어떤 설명도 필요없이 교실을 잠시 자유롭게 나갔다가 올 수 있다고 미리 이야기한다.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양의 내용이 떨어내기에서 다루어 졌음을 상기시키고 그러므로 만약 현재 진행중인 토론에 관계없는 질문들이나 언급이 있게 되면 그것들은 나중에 적절한 시간에 다시 토론하기 위해서 적어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생각이 머무는 자리”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수단을 사용하려면, 인도자는 “생각이 머무는 자리”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큰 종이를 벽에 붙인다. 언제든지 현재의 토론과 상관없는 문제가 나오면, 인도자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그 주제가 중요한 것을 인정해 주고 당시에는 어떤 토론도 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그 내용들이 “생각이 머무는 자리”라고 적힌 큰 종이에 적히게 된다. 인도자는 모임 마지막에 생각이 머무는 자리로 돌아갈 시간을 남겨 두었다가 그 내용을 다룰 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다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도를 나갈 것인지도 결정한다. 생각이 머무는 자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환영

참가자들의 환영에는 인도자가 말로 하는 환영이 있고,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서로를 사귀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루어지게 될 주제에 대한 간단한 토론도 들어간다.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난 후에는, 인도자는 간단하게 자기 배경을 나누고 자기가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나누면서 소개를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인도자는 돌아가면서 참가자들에게 자기 이름의 첫 글자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묘사해 보고-예를 들면 “영리한 영숙”-그리고는 다음 질문에 대답하라고 부탁한다: 당신은 고향이 어디인가, 당신은 이 공부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가? 인도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라고 권한다-예를 들면, “안녕, 영숙” 또는 “환영, 영숙”이라고 한다. 간단한 개관을 통해서 인도자는 다음 용어들을 소개해야 한다: 문화 적응력;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 라인(SPP); 학교에서 수감시설로 가는 길들, 감옥 산업 제도, 구조적인 불평등, 교차성, 그리고 암묵적 편견 등. 이런 용어들의 정의들은 이 교재의 뒤에 붙어 있다. 인도자들은 그것들을 복사해서 참가자들이 원하면 그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대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인도자는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방을 둘러보라고 하고 우리가 상당히 같은 점도 있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게 한다. 그 차이의 대부분은 문화와 우리가 사회화된 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문화와 사회화의 차이는 우리가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이유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문화와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와 공감이 제한된다.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진 이유의 대부분은-우리의 가치관과 생각하는 유형 등-표면 아래에 잠복해 있다. 문화 적응력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문화가 우리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교류하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 우리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의 많은 내용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형성되었다. 이 과정을 사회화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가족과 교육과 우리의 종교적 경험 등등에 의해서 형성된다. 사회화는 대개의 경우에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공통 근거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우리에게 건강한 사회적 교류를 제한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암묵적인 편견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회 기도와 교독문

제안된 개회 기도는 부록 B에 있는 **인종 정의를 위한 대화 지침**에서 따온 것이다.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기도를 위해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서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참가하라고 한다. 모임에서는 아래의 교독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할 것이다.

우리의 사회 원칙에 따른 동역자들의 교독문

한 사람: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시고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십니다.

**다함께: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라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온전함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생명의 온전함과 치유를 원하시며, 땅의 선함이 착취된 것을 보고 우시는 날입니다.

다함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오늘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부르짖음을 끌어안으시고, 다양성과 차이점을 기뻐하시고, 낮은 이들을 친구로 변화시키는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다함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오늘은 하나님이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고, 빈부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싫어하시며, 장터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시는 날입니다.

다함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거리에서 폭력이 자행된 것을 탄식하시고, 세상의 전쟁 놀음의 미친 짓을 꾸짖으시며, 강한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날입니다.

다함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오늘은 하나님이 민족들과 국가들이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신 날이며 정의와 자비가 포용하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며, 늑대가 어린양과 함께 풀을 뜯는 것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다함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함께: 오늘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억압받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³

출처: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 2016 저작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성경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뵈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해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창세기 16:13-14).

우리들 중의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익숙히 알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많은 민족의 아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라는 늙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거부하였다. 사실 그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었다. 그녀에게는 노예, 하갈이라고 이름하는 젊은 애굽 여인이 있었다. “하갈은 이름이라기 보다는 호칭이었다. 정관사 ‘하’(ha)에다 ‘거주 이방인’이라는 뜻의 ‘갈’(gar)의 합성어이다. 그녀는 아프리카계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음) 여성 혹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의 소녀인데 사라의 몸종으로 있었다 (창세기 16:1).”⁴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는 질투가 났고 하갈을 가혹하게 대했다. 그녀는 하갈을 아주 힘들게 해서 하갈은 광야로 도망갔다. 많은 *밀어내기*에 나오는 젊은 소녀들과 여인들 처럼 하갈은 문자적으로 자기 집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비록 하갈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학대를 당했어도 그녀는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귀하였다. 하갈은 남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가부장도 아니었지만 언약의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16:10).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직접받은 네 명 중의 한 사람이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더 일반적인 언약과는 달리, 하갈에게 준 약속은 자세하며 내용은 창세기 16:11에 나온다—첫번째 완전한 수태고지였다. 이 일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는 하갈에게 이렇게도 말한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보통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미래의 임신을 이야기하지 현재의 상태를 말하지는 않는다. 학자들은 여기서 종종 하갈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그녀의 아들에게로 초점을 옮긴다. 그러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하나님이 들으신다”)은 우리에게 하갈에게로 초점을 다시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하나님이 너의 고충을 들으셨다”—즉 하갈의 상황을 아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밀어내기*에 나오는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잊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하갈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선교를 따를 것을 기대하셨고 기도와 사랑을 통해 이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 가장 작은 자들로 여겨지는 이들을 위해 옹호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모리스(Morris)가 하는 말

이것은 개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을 것으로 전제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활동은 저자 모니크 모리스(Monique Morris)와의 인터뷰를 보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비디오는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인도자는 각 모임 이후 비디오를 멈추고 참가자들에게 소그룹으로 나누어 묵상 질문들을 토론할 시간을 준다. *밀어내기*의 마무리에서 모리스(Morris)는 현재의 제도와는 중요한 구조적 차이를 가진 새로운 학교 제도를 꿈꾼다. 그녀는 그 책과 자기의 비전을 “새로운 교육: 정의로의 전환 2018”(14분 41초짜리) 비디오에서 논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튜브에서 다음 단어를 쳐서 찾을 수 있다: 모니크 모리스 안드루스 패밀리 펀드(“Monique Morris Andrus Family Fund.”) 이 비디오는 다음 세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단락은 모리스가 제기한 질문들로 정리되어 있다. 각 질문은 모임에서 묵상할 질문들로 이어진다.

당신의 책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묵상 질문들: *밀어내기*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다룬다. 당신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당신의 신앙 여정은 모리스가 제기한 이런 문제들 중의 어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신이 얻은 승리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묵상 질문들: 당신 자신의 암묵적인 편견들과 사회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당신은 “태도”를 어떻게 규정하며 당신의 개인적인 편견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더 알게 될 수 있습니까? 행동을 범죄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정의의 비전은 무엇인가?

묵상 질문들: 미가 6:8은 이렇게 말한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은 *밀어내기*에 나오는 소녀들과 젊은 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의와 자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밀어내기*에 나오는 소녀들과 젊은 여자들을 위한 정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은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인가?

참가자들을 위한 묵상 질문들: 공평은 무엇인가? 공정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새로운 교육의 결과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치유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 것인가? 억압 반대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떠날 때의 묵상

이 모임을 마치기 전에 인도자는 “생각이 머무는 장소”로 돌아가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요점들이 적절한 것이 있으면 다룬다. 이 모임의 중요 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고 참가자들의 반응을 들어 본다. 인도자는 또한 참가자들에게 온라인 자료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의 암묵적인 편견을 알고 싶으면 <프로젝트 임플리시트>(Project Implicit)라는 자료를 참조하라고 한다. 그것은 다음 사이트에서 발견된다: implicit.harvard.edu/implicit. 인도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자기들 스마트폰이나 다른 전자 기기를 사용해서 인종에 대한 암묵적 편견 테스트를 해보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다른 테스트들 중 어느 것도 해 보아도 좋다. 다른 자료는 <암묵적 편견: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Implicit Bias: What We Don't Think We Think)이라고 하는 자료집이 있는데 2018년에 연합감리교회 총회 인종과 종교 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Race and Religion)에서 만든 것으로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gcorr.org/wp-content/uploads/2019/08/Implicit-Bias-August21.pdf.

인도자는 이것이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지 누구에게도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부탁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종종, 이러한 테스트 결과는 참가자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도자는 먼저 <자신이 보지 못하는 단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숨겨진 편견들>(Blind Spot: Hidden Biases

of Good People)이라는 마자린 알 바나지(Mahzarin R. Banaji)와 안토니 지 그린월드(Anthony G. Greenwald)가 같이 쓴 책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뉴욕, 반탐: 2016). 그 책은 <프로젝트 임플리시트>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인도자는 참가자들에게 그 결과는 단지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점과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그 결과 때문에 “자격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님을 상기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매일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일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 매일 묵상을 할 때 배운 것들의 내용들을 감사하고 묵상하라고 초청한다. 그리고 의도와 자기가 끼친 영향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유념할 것을 초청한다. 모든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고 나면 인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원을 만들어 마치는 기도를 위해 모이라고 한다. 인도자는 자원자 한 사람에게 기도를 짓가하게 하고 그 원안에 있는 각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에 참여하게 한다. 이 사역에 더 참여하고 싶은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해 참가 희망 지원서를 준비해 두도록 한다.

추가 모임: 요약

이 모임은 *밀어내기*라는 책의 개관을 제공해 준다. 이것은 단지 45분짜리 모임이라서 모든 정보와 자세한 내용들과 그 책이 가지는 분위기들을 다 다루는 것을 불가능하다. 그것은 교육제도에서 쫓겨났거나 쫓겨남을 당하고 있는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서술된 책이다. 그들 중의 일부는 쫓겨나자마자 직접 형사법 제도 속으로 밀려났다. 다른 이들은 인신 매매로 밀려났고 다른 이들은 성적 학대의 영역으로 쫓겨났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통계 자료와 해당 법규들과 정책들과 함께 제시도니다. “밀어내기”라는 개념과 흑인 소녀들의 행동의 범죄화는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아닐 지 몰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45분 동안 참가자들은 *밀어내기*에서 나누어진 이야기들의 주인공 공들인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과 친밀하게 될 것이고, 문화적응력,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SPP), 학교에서 수감시설로의 가는 길들, 감옥 산업 제도, 구조적 불평등, 교차성, 그리고 암묵적 편견 등의 용어들에도 익숙하게 될 것이다.

모리스(Morris)는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이라는 틀은 “대부분 남자들의 경험과 조건에서 발전된 것” (9 쪽)이라고 설명하고,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 흑인 소녀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성별 문제에서 구체적이고, 나이에 맞는 분석의 중요성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많은 참가자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들 가령 새로운 짐크로브(New Jim Crow), 감옥 산업 제도, 그리고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 등과 연관시키면서 소개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총회 교회와 사회 위원회(The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는 새로운 짐크로브(New Jim Crow)에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했고 감옥 산업 제도를 2012년부터 없애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연합 감리교회 대표들을 감독관 회의(Proctor Conference)에 보내어 연합 감리교회 전국 동원체(UM National Mobilization)를 조직해서 회복적 정의와 대량 수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집단 청원을 하였다. 그와 더불어 이 분야의 또 다른 진전은, 2016년에 연합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유색인종을 범죄집단화 하는 것을 그치는 결의안(Stop Criminalizing Communities of Color in the United States)을 통과시켰다.5 거기에 덧붙여 21세기 흑인 교회 강화안(Strengthening the Black Church for the 21st Century)은 전국 교도소장 회의(National Prison Summits)를 통해서 대량 수감 문제와 감옥 사역을 강화하는 문제를 다룰 연합 감리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지도하는 일에 초점을 둔 가장 앞선 제도권 목소리가 되어 왔다. sbc21.org/prison-ministry를 참조하라. 동시에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는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

이프라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훈련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짜는 일에 힘써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참조하라: unitedmethodistwomen.org/racialjustice/school2prisonpdf. 우리는 밀어내기를 함께 공부한 것이 유색 인종, 이 경우에는 흑인 소녀들을 위한 정의로 나가는 다음 단계이기를 바란다. 그들은 구조적인 인종차별과 성적 편견, 역사적인 고정 관념과 비유들과 나이 차별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교육 제도에서 밀려나고 사법 제도로 들어가서 인신 매매의 희생자가 된다.

전에도 말했지만, 모리스(Morris)는 전국의 소녀들과 여자들의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 나온 이야기들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아래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전국의 소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집한 통찰과 유형과 깨달음으로부터 여섯 가지 주제들이 흑인 소녀들의 학습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 소녀들을 학교에서 폭력과 피해자가 되는 일에서부터 보호하는 것, (2)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화를 선도하는 것, (3)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4) 학교에 기반을 둔 돌봄 서비스, (5) 훈육과 감독에 대한 강조를 줄이고 학생의 배움에 더 초점을 두는 일을 병행하는 것, 그리고 (6) 전통적인 학군이나 지역사회 학교들과 회복과정에서 다닌 학교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학점을 서로 교환하여 인정해 주는 것 (176 쪽).

인도자는 공부에 참가하는 이들이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들 중의 어떤 것들은 감정적인 혹은 다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 중의 어느 것은 아주 깊은 감정적인 반응을 인도자에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자료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인도자들은 이 모임을 인도할 때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열정이 공부시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목표는 참가자들이 듣고, 읽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소화하고, 이 책을 만나고 성경을 만나서 이 방을 떠날 때는 성령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모리스(Morris)는 또한 현재의 상황에 이르도록 한 역사적 및 법적인 선례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황에 대한 맥락도 제공하고 있다.

인도자들과 독자들은 이 공부를 할 때 이 목적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우리들은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해방과 회복과 자유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해라고 선포하는 한 그리스도를 이 토론 속으로 초청하여야 한다. 인도자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독교 여성들, 가령 캐서린 퍼거슨 (Catherine Ferguson, 5-6 쪽)과 메리 맥리오드 베티온(Mary McLeod Bethune, 6쪽) 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감을 얻고 힘을 얻어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들을 세웠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파울리 머레이(Rev. Dr. Pauli Murray) 목사같은 인종 정의의 법적 기초를 놓은 이들도 강조해야 한다.⁶

추가 모임: 중요 용어들

- i. **문화적 적응성:** “모든 차원에서—문화의 중요성, 다문화 관계의 평가, 문화적 차이에서 결과되는 역학관계, 문화적 지식의 확대, 그리고 문화적으로 독특한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의 채택”을 인정하고 종합하는 일이다.⁷
- ii.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 “학교에서 감옥까지의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유색인종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제도와 기관들에 의해서 교육적 성공에서 멀어지고 형사법 제도로 길을 바꾸게 되는 지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 iii. **학교에서 수감 시설로의 길들:**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본 것; 수감시설은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재소시설 (교도소 혹은 감옥)을 포함하지만 또한 가택 연금, 전자발찌, 의무 단체 수용시설 거주 등 소녀들이 경험하는 제한된 움직임의 모든 다른 형태도 포함된다.
- iv. **감옥 산업 제도:** “정부의 기능과 개인화된 주 돌 다에 있어서 감옥 제도가 자본과 용역을 끌어들이고 (가령 건강 진료, 정보통신, 건축시설 등) ‘어디나 있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모리스(Morris)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감옥 산업 복합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74 쪽).
- v. **구조적 불평등:** 제도와 기관들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선택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vi. **교차성:** “교차성”이라는 말은 1989에 킴벌리 크렌쇼(Kimberle Crenshaw)라는 인권 운동가이자 법학자가 만든 말이다. 교차성은 한 개인이나 그룹이 정체성이 겹치는 점과 그들의 경험, 특히 차별과 억압과 관련된 경험의 복합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 vii. **암묵적 편견:** 종종 행동이나 태도나 믿음이나 생각이나 활동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편견들을 뜻한다.

후주

1. *은혜의 여성 공동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프로그램북*, 2018-2019 (뉴욕: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2018), 5 쪽.
2. 샬리 디크(Sally Dyck), *거룩한 모임의 여덟 가지 원칙들: 교회와 모임들을 위한 공부 지침* (연합 감리교회: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 2012).
3. *연합 감리교회 장정-2016* (내쉬빌: 연합 감리교회 출판부, 2016).
4. 윌 개프니(Wil Gafney), “하갈 (많은 나라들의 아프리카계 어머니),” 미출판물, 2019년 7월 1일 인용, bibleodyssey.org:443/people/main-articles/hagar.
5.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2016*, 결의안 3379 호.
6. “감리교회 여성교회: 은혜의 자매관계, 선교하는 여성의 역사,” 2014년 3월 20일 게재 혹은 개정, unitedmethodistwomen.org/news/methodist-women-sisterhood-of-grace.
7. 요셉 베탄코트(Joseph Betancourt), 알렉산더 그린(Alexander Green), 제이 에밀리오 카리요(J. Emilio Carrillo), 오부수 아나네-파이렘퐁(Owusu Ananeh-Firempong) 공저, “문화적 적응성을 규정하기: 건강과 의료 보험제도에 있어서 인종/민족 차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천적 틀,” *공중 보건 보고서* 118 호 (2003년 7-8월호): 294 쪽.

부록 A

중요 용어들: 첫째 모임

- i.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 라인:** (밀어내기, 9, 11, 12 쪽):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유색인종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제도와 기관들에 의해서 교육적 성공에서 멀어지고 형사법 제도로 길을 바꾸게 되는 지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 ii. **학교에서 수감시설로 가는 길들:** (12, 14 쪽):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본 것; 수감시설은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재소시설 (교도소 혹은 감옥)을 포함하지만 또한 가택 연금, 전자발찌, 의무 단체 수용시설 거주 등 소녀들이 경험하는 제한된 움직임의 모든 다른 형태도 포함된다.
- iii. **교차성:** (23, 196 쪽): “교차성”이라는 말은 1989에 김벌리 크렌쇼(Kimberle Crenshaw)라는 인권 운동가이자 법학자가 만든 말이다. 교차성은 한 개인이나 그룹이 정체성이 겹치는 점과 그들의 경험, 특히 차별과 억압과 관련된 경험의 복잡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 iv. **내면화된 인종적 억압:** (43 쪽): 인종적으로 억압적인 믿음과 실천과 태도와 행동들이 유색인종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유색인종에게 대하여 유지되는 것, 또한 유색인들이 자기들 내부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종적인 억압을 구체화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거나 억압적 형태의 이념적 및 제도적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 v. **구조적 불평등:** (48, 67 쪽) 제도와 기관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평하고 평등한 선택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vi. **암묵적 편견들:** (50, 183 쪽): 행동이나 태도나 믿음이나 생각이나 행위들에서 종종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편견들을 뜻한다.
- vii. **대량 수감:** (14, 181 쪽): 미국 내에서 아주 높은 비율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갇히는 현상 (1970년 대 후반에 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으로, 감옥이 늘어나고 불균형적으로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 viii. **유색인종 공동체들의 범죄 집단화:** 유색인종 공동체들이 더 위험하고 백인 공동체들보다 더 “범죄적”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정책들, 실천들, 믿음들, 태도들, 그리고 행동들이 대량 수감과 대량 추방, 그리고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파이프라인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고 키우는 것을 뜻한다.

중요 용어들: 둘째 모임

- i. **무관용 정책들:** 학교 차원에서는 이런 정책들은 정학, 퇴학, 그리고/또는 사소한 범죄 때문에 체포까지 요구한다; “무관용 정책” 접근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법 집행과 형사법 정책들이다.
- ii. **차별적인 훈육 관행들:** 변혁이나 관계의 회복 보다는 처벌 그리고/혹은 격리에 초점을 맞춘 훈육을 뜻한다.
- iii. **다세대에 걸친 정신적 충격:** 소유물로 여겨진 노예제도, 짐 크로(Jim Crow) 법들, 그리고 대량 수감을 포함한 인종간 억압의 역사적 및 현재적인 충격을 뜻한다.

중요 용어들: 셋째 모임

- i. **성적 학대:** 성적인 폭력, 그것이 일회성이든 지속적이든, 가해자가 폭력을 쓰거나 위협을 하거나, 그리고/또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 ii. **이성애자:** 자기가 출생할 때 주어진 성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일치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용어이다.
- iii. **트랜스젠더:** 자기들이 출생할 때 주어진 성에 근거해서 문화적으로 기대하는 성이 자신이 가진 성적 정체성 그리고/혹은 표현과 다른 사람들을 표시하는 용어.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성적 정체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 사람들은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등 일 수 있다.
- iv. **이분법적 양성 구분:**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있다고 하는 믿음. 다른 성의 표현들, 가령 성별을 구분하기를 거부하는 젠더퀴어, 비양성, 혼성, 유동적 성, 두 영의 성 등등을 외면함을 뜻한다.
- v. **이분법적 양성 구분 이외의 성 정체성:** 양성 구분을 가지고 자기 성을 표현하거나 규정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성적 정체성을 뜻한다.

중요 용어들: 넷째 모임

- i. **흑인의 삶이 중요하다:** 흑인에 대한 폭력과 억압, 특히 경찰력과 자결단의 손에 흑인들이 부당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저항하는 운동 및 조직; 트레이본 마틴(Trayvon Martin)의 죽음 이후에 흑인 퀴어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 ii. **문화적으로 적응력있는 교과 과정:** 문화적으로 적합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교육 교과 과정과 의미있고 참여적인 학습 환경을 만드는 교육적 실천을 뜻한다.
- iii. **치유가 전달되는 교실:**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존중되고 존경되는 학습 환경으로 개인 및 집단 치유를 위한 공간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 과정; 종종 학습자의 사회 정서적 필요와 충격적인 역사들에 민감하다.

부록 B

제안된 개회 기도

에이미 스테이플톤 목사(Rev. Amy Stapleton)에 의해서 작성된 기도문에서 차용함.

힘든 세월을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리없는 눈물을 보신 하나님,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중요하지만 어려운 도전들, 가령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적 불평등을 논할 때,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미움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선물에 마음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저지른 죄들—우리들 안에 반영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무능력과 우리의 깨어짐에서 비롯된 죄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함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일에 동조해 왔던 그 방식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갈등과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총기와 인종차별과 계급주의와 성차별과 동성애 혐오증과 장애인 차별과 대량학살과 가난과 특권으로 갈기갈기 찢어진—이 세상에서 평화의 지체가 되고 정의의 일을 하는데 더 마음을 쓰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가 장벽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주 의회 의사당에서, 감옥에서, 산꼭대기에서, 교실 안에서, 대륙들에서, 교회 안에서, 장벽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인도해 주소서. 그 일에 우리 자신을 거듭 거듭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께 오늘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를 이 길에서 영원히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출처: 에이미 스테이플톤 목사님(Rev. Amy Stapleton)이 하신 기도에서 차용함. 연합 감리교회 총회 종교와 인종 사역부. gcorr.org.

부록 C

기도 (이사야 11의 정신을 따른)

주님의 영이 -
지혜와 통찰의 영,
충고와 용기의 영,
지식과 존경의 영이 -
우리에게 비추기를
그리고 우리를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차이를 보여주십시오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의 차이를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우리의 귀가 때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신실함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사
모든 취약한 이들
- 특히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게 하소서.

변화된 세상을 꿈꾸도록 도와 주소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늑대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사자가 사슴과 함께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주님의 피조물들이 안식 가운데서
평화 속에 가정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된 세상을 꿈꾸도록 도와 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에
합당한 세상,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세상,
어떤 악한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가득채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소서.

왜냐하면
한 번 우리가 그 꿈을 가지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cokebury.com/9780687084142-The-Children-of-Israel?refq=children%20of%20israel%20, p. 227 ©
2003 아빙돈 프레스에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부록 D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애가를 들으소서

케냐 커밍스(Kenya Cummings) 지음

참가자들: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 주님은 저를 영영 잊으실 것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실 것입니까?

낭독 인도자: 우리는 자신들의 이름과 이야기가 잊혀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그 소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주님,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고 보여졌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 잊혀진 이들을 기억하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흑인 소녀들의 이름들과 이야기들과 희망들을 기억하도록 도와 주소서.

참가자들: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저 자신의 피로 살도록,
번민으로 제 가슴을 채우며 살도록 두시렵니까? 매일?
얼마나 오랫동안 제 원수가 저를 계속 패배시키도록 하시렵니까?

낭독 인도자: 우리는 결정권을 가진 기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쫓기고 감금당한 흑인 소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이런 문제들로 씨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여정을 돕게 하시고, 흑인 소녀들이 온전히 도움을 받을 기회들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참가자들: 저를 보십시오!
제게 응답하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은 자처럼 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들은 “내가 이겼다!”하고 외칠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은 나의 패망을 기뻐할 것입니다.

낭독 인도자: 우리의 애가를 들어 주십시오...
퇴학과 성적인 폭력의 영향을 받은 소녀들의 애가를 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들을 간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십시오.

다함께: 그러나 저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습니다.
내 가슴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언제나 선하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록 E

아이오와

279.58. 학교 복장 규정.

2. 학군 이사회는, 그 학군을 위해서 혹은 그 학군 내에 있는 개별 학교를 위해서, 만약 복장 규정이 학교 환경 안에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 안전, 혹은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나 학교 운영과 훈육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들에게 갱단과 관련되었거나 혹은 다른 특정 복장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복장 규정을 채택하고 집행하는 것은 280.22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¹

펜실바니아

규정들

22 Pa. Code 12.11. 머리와 의상.

(a) 이사회는 복장 규정을 정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규정들은 개별 학교 빌딩 혹은 전체 학교 빌딩에 적용될 수 있다.

(b) 학생들은 자기의 털, 얼굴의 솜털을 포함해서, 머리의 길이와 모양을 정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 대한 어떤 제한도 털의 길이 혹은 모양이 교육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거나 건강 혹은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증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털의 길이나 모양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줄 때는 어떤 식으로든 가리는 방법이 사용될 것이다.

(c) 학생들은 체육 시간, 작업 시간, 특별 활동 등 다른 특별 복장이 요구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학생의 건강 혹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 복장을 요구할 수 있다.

(d) 학생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의복과 자신들의 머리를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다. 학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청결 부재가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정기적인 지도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²

미시간

교칙

여러 단계 훈육 방식의 사용

법규들

관련 법규를 찾지 못했음.

규정들

관련 규정들을 찾지 못했음.

학생들을 교실에서 나가게 할 교사의 권한

법규들

380.1309. 정학에 해당하는 행동; 교사의 조치; 보고; 감독; 회의; 학생이 돌아오는 경우; 학교 이사회의 학칙 결정; 정학의 정의.

(1) 만약에 공립학교의 교사가 한 학생의 교실, 주제, 활동에서의 행동이 제 (2) 항의 학칙에 따라 그 학생을 교실, 주제, 활동에서 일시 배제 시켜야 할만하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는, 그 교사는 그 학생을 최대 하루까지 교실, 주제, 활동에서 배제 시킬 수 있다. 그 교사는 바로 교장에게 정학 사실과 정학 이유를 보고해야 하며 그 학생을 교장실 혹은 교장이 정한 교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내야 한다. 만약 그 조치가 학생이 계속 학교에 있을 것을 요구할 경우, 그 학생은 적합한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한 정학이 끝난 후 가능한 빨리, 교사는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부모-학생 회의를 그 정학에 관련해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 학교 상담사, 학교 심리사, 또는 학교 사회 봉사자가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만약 교사, 부모, 보호자 중이 한 사람이 요구한 경우에는 학교 행정담당자가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정학 기간 동안에는 그 학생은 그 수업, 주제, 활동 담당 교사와 학교 교장의 허락이 없는 한 그 학생이 정학당한 수업, 주제, 활동에 그 수업일에는 돌아갈 수 없다.

(2) 학교 이사회는 학교, 주제, 혹은 활동에서 교사가 이 규정에 따라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는 행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 학칙은 학교 이사회의 학생 행동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규정들

관련 규정들이 없음.

정학 대체 훈육 방법들

법규

380.1310c. 정학이나 퇴학에 대신하는 또는 그에 더해지는 회복을 위한 조치들; 정의들.

(1) 학교 이사회나 거기서 위임받은 기구는 이 규정에 따른 정학 혹은 퇴학 대신 혹은 그에 더해서 회복을 위한 조치들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학교 이사회 혹은 그 위임기관이 이 규정에 따라 학생을 정학 혹은 퇴학시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학교 이사회나 그 위임기관은 정학 혹은 퇴학에 더해서 회복 조

치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사회나 그 위임 기관이 그 학생의 훈육 문제에 있어서 정학 혹은 퇴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학교 이사회나 그 위임기관은 그 훈육 문제를 다룰 회복적 조치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2) 회복적 조치에는 피해자가 주도하는 피해자-가해자 모임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모임은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가 승인해야 하며, 피해자가 최소한 15세인 경우는 피해자가 동의해야 한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사, 가해자,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구들이다. 그 모임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끼친 잘못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잘못의 결과들을 바로 잡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회복적 조치 팀이라고 불리는 그 참석자들은 그 학생에게 다음 중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과하기;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기, 회복 또는 상담; 또는 손해배상. 정해진 결과들은 합의문에 포함되고 모든 사람이 서명한 가운데 그 합의를 언제까지 실천한다는 시한을 정한다. 회복 조치들은 먼저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왕따, 언어적 및 신체적인 갈등, 도둑질, 재물 손해, 수업 방해, 그리고 희롱과 사 이버 왕따 등등의 잘못들을 교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380.1310d. 학생의 정학 혹은 퇴학; 요인들; 재량권 사용;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는 전제들; 무기 사용 금지 학교 지역에서 총기류 소지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 의무적 고려 사항들; 정의들.

(1) 1310, 1311(1), 1311(2), 또는 1311a 항에 의거 학생의 정학이나 퇴학을 명하기 전에 학군 이사회 혹은 상급 이사회 혹은 공립 학교 아카데미 이사회, 혹은 학교 교장, 또는 1311(1)에 의거한 위임 기관은 다음 요인들 하나 하나를 고려해야 한다:

- (a) 학생의 나이.
- (b) 학생의 전과 기록.
- (c) 학생의 장애 여부.
- (d) 학생에 의해 저질러진 행동 혹은 위반의 심각성.
- (e) 학생에 의해 저질러진 행동 혹은 위반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했는지 여부
- (f) 학생에 의해 저질러진 행동이나 위반을 다루기 위해 회복적인 조치가 사용될 지 여부.
- (g) 학생에 의해 저질러진 행동 혹은 위반을 다루는데 덜 심한 조치가 더 적합할 지 여부.³

미시시피

교칙

여러 단계 훈육 접근 법의 사용

법규

관련 법규 없음.

규정

관련 규정 없음.

학생을 교실에서 배제할 교사의 권위

법규

§ 37-11-55. 학생 행동 지침.

개체 학교 이사회는 매년 초에 교사, 교직원, 학생, 그리고 부모들과 보호자들과 협의하여 학생 행동 지침을 만들어 교사, 교직원, 학생, 그리고 부모들과 보호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이 지침은 학교 이사회에서 채택한 학생 행동 지침과 훈육 지침을 감독하는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학생 핸드북 혹은 비슷한 출판물을 통하여 학교 전체에 배포되어야 한다. 그 지침은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d) 교실 내에서의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문서화된 훈육 지침을 따르는데 있어서 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지지하는 절차와 규정. 그런 인정에는 교사가 어떤 학생이든지,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학습 환경을 저해한다고 여기는 학생을 교실에서 나가게 하고 교장이나 부교장에게 보낼 권리를 포함한다. 교장 혹은 부교장은 그 학생이 적당히 있을 곳을 정하고, 방해되는 행동이 논의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방해가 없을 것이라는 부모,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함께 한 어떤 종류의 회의가 있기까지는 그 학생은 교실로 돌아갈 수 없다. 만약 교장이 그 학생을 교실에서 배제하는 교사의 결정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학생은 교실에서 배제될 수 없고, 교장은 교사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승인 부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규정들

정학을 대신하는 조치에 관련된 규정들이 없음.

법규

§ 37-11-53. 학군내 훈육 계획들; 부모, 보호자, 법정 대리인의 훈육 회의 참석; 학교 재산 피해나 파괴에 대한 부모의 보상; 자녀의 정학 대신 부모가 학생과 함께 등교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5) 학군 훈육 계획은 정학 대신에 학생이 부모, 보호자, 혹은 법정 대리인과 함께 학교에 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교사 혹은 교사들의 동의하에 학생은 보고한 교사와 학교 교장이 동의한 구체적인 기간 동안 부모, 보호자, 혹은 법정 대리인과 함께 학교에 올 수 있다. 만약 부모, 보호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학생과 함께 등교하기를 동의하지 않거나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학생은 학군 훈육 정책과 학생 행동 지침에 따라 정학되어야 한다.

규정

관련 규정이 없음.⁴

북 캐롤라이나

§ 115C-390.2. 훈육 정책들.

(a) 개체 학교 이사회는 학생의 행동에 관련된 정책들을 채택할 수 있고 학생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학교 당국자들이 따라야 될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북 캐롤라이나 주와 미국의 헌법과 법규와 규정에 정한 조항의 내용들과 일관되어야 한다.

(b) 이사회 정책에는 학생 행동 지침의 개발을 지원하거나 포함해야 하며 그 지침은 학교 당국자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훈육 방법들의 범위와, 훈육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들과,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의 기준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c) 이사회 정책들은 교육 시설에서 벌어진 행동에 대해서 정학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학생의 행동이 학생 행동 지침을 어길 경우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이 학교 환경 내의 다른 개인들의 안전이나, 학교의 효율적이고 질서 정연한 운영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한다.

(d) 이사회 정책들은 학생들에게 단지 무단 결석이나 지각을 이유로 장기 정학이나 퇴학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런 위반에 대해서 2일 이상의 단기 정학도 해서는 안된다.

(e) 이사회 정책들은 주법이나 연방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한 구체적인 위반을 이유로 의무적인 장기 정학이나 퇴학을 명해서는 안된다.

(f) 이사회 정책들은 장기 정학과 퇴학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장기 정학이나 퇴학은 이사회 학생 행동 지침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을 위협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심각한 위반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의 예로는 적합하지 않거나 예의에 어긋난 언어 사용, 교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 복장 규정 위반, 그리고 무기나 상해를 포함하지 않은 사소한 신체적인 상처 등이 있다. 그러나 교장은, 자기 재량에 따라, 사소한 위반이 심각한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 악화를 판단할 수 있다.

(g) 이사회 정책들은 교장이나 교육감이 장기 정학을 권고하거나 명할 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생의 의도, 훈육 전과 및 학업 기록, 정학을 대신하는 방식들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유익, 그리고 다른 피해를 줄이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h) 이사회 정책들은 학교 당국자들이 정학, 퇴학, 어떤 학생에 대한 학교 처벌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따라야 할 절차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법조항과 일치해야 한다.

(i) 각 학교 이사회는 이 조항에 의해서 요구되는 모든 정책들과 행정 절차들과 학교 규칙들을 출판해서 그것들을 모든 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매학년 시작 시에 요청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j) 각 교육 이사회는 그 안전한 학교 계획안에 법으로 정해진 G.S. 115C-105.47 항목에 따라 학생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접근법을 택하는 연구에 기반을 둔 행동 관리 프로그램들을 포함시킬 것을 권한다.

(k) 학교 교직원들은 훈육 규정 위반에 대한 모든 대응방식들을 다 사용할 것을 권한다. 즉 회의, 상담, 동료 중재, 행동 계약, 갈등 조정과 분노 조절 지침, 방과 후 남게하기, 보충 수업,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학생을 교실이나 학교에서 배제하지 않는 다른 비슷한 방식들 등.

(l) (2016- 2017 학년에 처음 공립 학교에 등록한 어린이들에게 적용되는 규정) 이사회 정책은 G.S. 130A-440에 의한 결석은 정학이 아님을 규정해야 한다. G.S. 130A-440에 따른 결석을 한 학생은 다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1) 결석 기간 동안 집에 교과서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자 기기들을 가지고 갈 기회
- (2) 요청할 경우 모든 미완성 과제를 받고 그 과제와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주어진 자료들을 실제적인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
- (3) 결석 기간 동안 치루어진 분기별, 학기별, 또는 학점 기간의 시험들을 치룰 기회⁵

후주

1. <차일드 트렌즈>(Child Trends)와 <이엠티 어소시에이트>(EMT Associates, Inc). 50개 주, 콜롬비아 디스트릭트, 그리고 미국 교육국을 위한 학교 훈육 법규와 규정 모음, 2019년 4월 3일 모음, safesupportivelearning.ed/gov/school-discipline-compendium.pdf, 1,544쪽 (쪽 수는 pdf에 따름).
2. 학교 훈육 법규와 규정 모음, 3,717 쪽.
3. 학교 훈육 법규와 규정 모음, 2,174 - 76쪽.
4. 학교 훈육 법규와 규정 모음, 2,378 - 79 쪽.
5. 학교 훈육 법규와 규정 모음, 3,230 - 31 쪽.

선정된 도서 목록/자료 목록

- Alexander, Michelle. *The New Jim Crow: Mass Incarceration in the Age of Colorblindness* (New York: The New Press, 2011).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Zero Tolerance Task, Force. “Are Zero Tolerance Policies Effective in the Schools?: An Evidentiary Review and Recommendations.” *The American Psychologist* 63, no. 9 (2008): 852–62. <http://dx.doi.org/10.1037/0003-066X.63.9.852>.
- Anderson, Cheryl B. *Ancient Laws and Contemporary Controversies: The Need for Inclusive Biblical Interpre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 *Women, Ideology and Violence Critical Theory and the Construction of Gender in the Book of the Covenant and Deuteronomic Law*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Boyd, Tona M. “Confronting Racial Disparity: Legislative Responses to the School-to-Prison Pipeline.” *Harvard Civil Rights-Civil Liberties Law Review* 44, no. 2 (2009): 571.
- Bush, William S. *Who Gets a Childhood?: Race and Juvenile Justice in Twentieth-Century Texas*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0).
- Children’s Defense Fund. “Cradle to Prison Pipeline Factsheet New Jersey.” Children’s Defense Fund, 2009.
- Christner, Terry. “Pushout: The Criminalization of Black Girls in Schools.” *Library Journal* 141, no. 5 (2016): 121.
- Coggschall, Jane G., David Osher, and Greta Colombi. “Enhancing Educators’ Capacity to Stop the School-to-Prison Pipeline.” *Family Court Review* 51, no. 3 (2013): 435–44. <http://dx.doi.org/10.1111/fcre.12040>.
- Couey, J. Blake. “Isaiah (son of Amoz).”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cited May 8, 2018. bibleodyssey.org/people/main-articles/Isaiah. Walter J. Houston. “Social Justice and the Prophet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cited May 8, 2018. bibleodyssey.org/passages/related-articles/social-justice-and-the-prophets.
- Curtis, Aaron J. 2014. “Tracing the School-to-Prison Pipeline from Zero-Tolerance Policies to Juvenile Justice Dispositions.” *Georgetown Law Journal* 102, no. 4: 1,251.
- Davis, Morris L. “W. Astor Kirk, Desegregation of the Methodist Church Polity: Reform Movements That Ended Racial Segregation.” *Methodist History* 44, no. 3 (2006): 194.
- . *The Methodist Unification: Christianity and the Politics of Race in the Jim Crow Er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8).
- Dixon, Stephen W. “What’s So Special About Children?: A Reconsideration of the Use Made of Scriptures Such as Matthew 18:1–5 in Advocating the Importance of Children for the Church.” *Journal of Childhood and Religion* 5, no. 1 (2014).
- Edelman, Marian Wright. “The Cradle to Prison Pipeline: An American Health Crisis.” *Preventing Chronic Disease* 4, no. 3 (2007): A43.
- . “The Cradle to Prison Pipeline: America’s New Apartheid.” *Harvard Journal of African American Public Policy* 15 (2009): 67.
- Elkins, Kathleen Gallagher, and Julie Faith Parker. “Children in Biblical Narrative and Childist Interpret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the Biblical Narrative*, edited by Danna Nolan Fewe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644.
- Epperson, Lia. “Brown’s Dream Deferred: Lessons on Democracy and Identity from Cooper V. Aaron to The ‘School-to-Prison Pipeline.’” *Wake Forest Law Review* 49, no. 3 (2014): 687.
- Epstein, Rebecca, Jamilia Blake, and Thalia González. “Girlhood Interrupted: The Erasure of Black Girls’ Childhood.” (Washington, DC: Center on Poverty and Inequality, Georgetown Law, 2017).
- Evans-Winters, Venus E., and Equity with Girls for Gender. “Flipping the Script: The Dangerous Bodies of Girls of Color.”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17, no. 5 (2017): 415–23.
- Fader, Jamie J., et al. “A Promising Approach to Narrowing the School-to-Prison Pipeline: The Wise Arrest Diversion Program.”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3, no. 2 (2015): 123–142. <http://dx.doi.org/10.1177/1541204014521249>.

- Fedders, Barbara, and Jason Langberg. "School-Based Legal Services as a Tool in Dismantling the School-to-Prison Pipeline and Achieving Educational Equity." *University of Maryland Law Journal of Race, Religion, Gender and Class* 13, no. 2 (2013): 212–36.
- Feld, Barry C. "The Politics of Race and Juvenile Justice: The 'Due Process Revolution' and the Conservative Reaction." *Justice Quarterly* 20, no. 4 (2003): 765–800. <http://dx.doi.org/10.1080/07418820300095691>.
- Findlay, Nora M. "Should There Be Zero Tolerance for Zero Tolerance School Discipline Policies?" *Education & Law Journal* 18, no. 2 (2008): 103.
- González, Thalia. "Keeping Kids in Schools: Restorative Justice, Punitive Discipline, and the School to Prison Pipeline." *The Journal of Law and Education* 41, no. 2 (2012): 281.
- Goodkind, Sara, et al. "From Child Welfare to Juvenile Justice: Race, Gender, and System Experience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1, no. 3 (2013): 249–72. <http://dx.doi.org/10.1177/1541204012463409>.
- Healey, Melina Angelos. "Montana's Rural Version of the School-to-Prison Pipeline: School Discipline and Tragedy on American Indian Reservations." *Montana Law Review* 75, no. 1 (2014): 15.
- Hines-Datiri, Dorothy, and Dorinda J. Carter Andrews. "The Effects of Zero Tolerance Policies on Black Girls: Using Critical Race Feminism and Figured Worlds to Examine School Discipline." *Urban Education* (2017): <http://dx.doi.org/10.1177/0042085917690204>.
- Holley, Lynn C., and Russell K. Van Vleet. "Racism and Classism in the Youth Justice System: Perspectives of Youth and Staff." *Journal of Poverty* 10, no. 1 (2016):45–67. http://dx.doi.org/10.1300/J134v10n01_03.
- Human Rights Watch, *Growing Up Locked Down: Youth in Solitary Confinement in Jails and Prisons Across the United States*.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2012.
- Ispa-Landa, Simone. "Racial and Gender Inequality and School Discipline: Toward a More Comprehensive View of School Policy." *Social Currents* (2017). <http://10.1177/2329496517704876>.
- Jordan, Kareem L., and Jacinta M. Gau. "Special Issue on Race and Juvenile Justice: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Division on People of Color and Crime." *Race and Justice* 5, no. 1 (2014): 3. <http://doi.org/10.1177/2153368714564646>.
- Kemp-Graham, Kriss Y. "#Blackgirlsmatter: A Case Study Examining the Intersectionality of Race, Gender, and School Discipline." *Journal of Cases in Educational Leadership*: (2017). <http://doi.org/10.1177/1555458917741171>.
- Leiber, Michael J., Sarah Jane Brubaker, and Kristan C. Fox. "A Closer Look at the Individual and Joint Effects of Gender and Race on Juvenile Justice Decision Making." *Feminist Criminology* 4, no. 4 (2009): 333–58.
- Meiners, Erica R. "Ending the School-to-Prison Pipeline/Building Abolition Futures." *The Urban Review* 43, no. 4 (2011): 547–65. <http://dx.doi.org/10.1007/s11256-011-0187-9>.
- Nash, Keri A., Cynthia Robbins, and Edgar S. Cahn. "A Strategy for Dismantling Structural Racism in the Juvenile Delinquency System." *Poverty & Race* 20, no. 2 (2011): 1–8.
- Smith, Mikki L. "Generation at Risk: The Ties between Zero Tolerance Policies and the School-to-Prison Pipeline." *McNair Scholars Research Journal* 8, no. 1 (2015).
- Snapp, Shannon D., et al. "Messy, Butch, and Queer: LGBTQ Youth and the School-to-Prison Pipelin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0, no. 1 (2015): 57–82. <http://dx.doi.org/10.1177/0743558414557625>.
- Tubbs, David L. "Childism: Confronting Prejudice against Children." *First Things* 227 (2012): 61–63.
- Tuck, Eve. *Urban Youth and School Pushout: Gateways, Get-Aways, and the GED* (New York: Routledge, 2012).
- Ward, Stephanie Francis. "Racial Imbalance Feeds School-to-Prison Pipeline." *ABA Journal* 100, no. 4 (2014): 66.
- West, Traci C. *Wounds of the Spirit: Black Women, Violence, and Resistance Ethics* (New York: NYU Press, 1999).
- Williams, Dolores S. *Sisters in the Wilderness: The Challenge of Womanist God-Talk* (Maryknoll, NY: Orbis Books, 2013).
- Williams, J. L. "Book Review: *Race and Juvenile Justice* by E.B. Penn, H.T. Greene, and S.L. Gabbidon,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2005." *Criminal Justice Review* 34, no. 2 (2008): 295–96. <http://dx.doi.org/10.1177/0734016808325625>.
- Wilson, Harry. "Turning Off the School-to-Prison Pipeline." *Reclaiming Children and Youth* 23, no. 1 (2014): 49.

저자 소개

바네사 엠 윌슨 목사(The Rev. Vanessa M. Wilson), 법학박사, 신학석사. 바네사는 타인종 목회자인 마그놀리아 로드 연합 감리교회(Magnolia Road UMC) 담임 목사이며,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회중인 성 바울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그녀는 여러 분야에서 연합 감리교회를 섬겼는데 지금은 대 뉴저지 연회(Greater New Jersey Conference)의 종교와 인종 위원회(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의 위원장이다. 그녀는 대량 수감을 종식시키고 그 분야에서 옹호와 교육과 훈련을 계속하기 위한 연합감리교회 전국 동원(United Methodist National Mobilization)을 인도한 35명 연합 감리교인들 중의 하나이다. 윌슨(Wilson) 목사는 대 뉴저지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를 위해 선교 학교를 인도해 왔다. 그녀는 또한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교육과 법적 옹호, 형사법 개혁, 경제 정의, 인종 정의, 그리고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전지구적 건강 등을 위한 공개 강연 등에 관여해 왔다. 바네사 엠 윌슨 자문회사(Vanessa M. Wilson Consulting)의 설립자로서 그녀는 개인들은 물론 신앙에 기초한 비영리 단체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훈련하고 코치를 한다. 그녀는 강연자로 또 회의 연사로 활약한다. 윌슨은 루트거 대학(Rutgers University)에서 도시 계획 및 지역 공동체 개발(Urban Plan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전공으로 학사를, 루트거 대학 법대에서 법학 박사를, 그리고 드류 대학교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았고, 거기서 현재 아프리카 사람들의 영성과 히브리 성경에 집중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 중이다. 그녀의 다른 관심으로는 트랜스젠더들의 정신적 충격, 전지구적 건강, 그리고 인종, 종교, 법의 교차성 등이다. 그녀는 두 멋진 성인 아들의 엄마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자문 위원 소개

케냐 커밍스(Kenya Cummings)는 남부 출신의 흑인 운동가이자 목사이다. 그녀는 당당한 흑인이며 부끄러움 없이 본인의 영성이 풍부함을 밝힌다. 그녀는 정의를 위한 지성과 마음을 가진 새로운 스타일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이다. 그녀는 켄터키 대학에서 가정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부전공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를 했다. 케냐는 오하이오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웃거나 글을 쓰거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될 때가 많다.